

S C E N A R I O

Ver 2.0

택 시 운 전 사

T a x i D r i v e r

T H E L A M P

연출 장 훈 / 각본 엄 유 나

copyright 2016 THE LAMP. All rights reserved. Unauthorized copying is prohibited

암전 속에서 떠오르는 자막,

“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 되었습니다 ”

비행기 엔진 소리, 분주한 사람들의 소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안내 방송 등이 겹쳐진다.

1. 인천국제공항 / 낮

2003년 12월.

입국심사대로 향하는 탑승객들 사이, 독일인 피터(60대 후반)의 모습이 보인다.

입국심사대 앞에 길게 늘어선 행렬. 피터의 차례가 된다.

피터의 여권에 빼곡하게 찍혀있는 도장들 중에는 대한민국의 도장도 여러 개 눈에 띈다.

입국심사원이 힐끔 쳐다보자, 가볍게 미소를 짓는 피터.

피터의 여권에 또 하나의 대한민국 도장이 황! 찍한다.

공항을 빠져나온 피터가 주변을 둘러보는데, 길게 늘어선 빈 택시들이 보인다.

만감이 교차하는 얼굴로, 맨 앞 택시에 타는 피터.

기사 (잔뜩 긴장) 하이.

피터 하이.

기사 (더듬더듬) 웨얼. 알. 유. 고잉?

피터 공덕동 갑시다.

예상치 않은 한국말에, 택시기사가 고개를 돌려 피터를 쳐다본다.

기사 (신기, 반갑) 손님, 한국말 잘 하시네요.

피터 (가벼운 미소)

뽕뽕. 왜 안가냐고 울리는 뒷택시의 클락슨. 그제서야 택시기사가 서둘러 출발한다.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룸미러를 통해 피터를 힐끔 거리는 택시기사.

피터 (쳐다보며) 기사님.

기사 (당황) 예?

피터 미터기요.

여전히 ‘빈차’로 되어 있는 택시요금 미터기.

기사 (미터기를 누르며)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피터를 쳐다본다) 근데, 어떻게 메다기를 아세요?

옛 기억이 나는 듯, 미소를 지으며 창 밖을 바라보는 피터.

피터 제 친구도 택시 운전을 했거든요.

창밖을 바라보는 게스트의 눈에 보이는 변화된 서울의 모습에서 과거 화면으로 전환되면,

숨숨숨~~~ 송송송~~~ 흥겨운 신디사이저 소리가 먼저 울리고 이내 조용필의 '단발머리'가 신나게 울려 퍼지며 등장하는 타이틀 시퀀스

「택시운전사」

2. 만섭의 택시 안 / 새벽

1980년 5월

조용필의 단발머리가 택시 안 라디오에서 울려 퍼지면 택시기사 김만섭(40)이 등장한다.
만섭, 운전을 하며 단발머리를 신나게 따라 부른다.

만섭 (노래) 비에 젖은 풀잎처럼 단발머리 곱게 빛은 그 소녀 / 반짝이는 눈망울이 내 마음에 되살아나네~

- 청량리역 앞

만섭 옆 보조석에 앉은 덩치는 큰 30대 초반의 남자 손님.
뒷자리에는 정원을 초과한 채 구겨 앉아 있는 세 명의 남자 손님들.
봄나들이라도 가는 듯 모두 커다란 배낭 가방을 하나씩 들고는 박수 치고 어쨌든 하고 신이 나서 조용필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다.
정원 초과와 더불어 과하게 발랄한 덩치 큰 남자 손님들.
만섭의 얼굴이 심하게 구겨져 있다.

남자들 (떼창) 우우우~ 못 잊을 그리움 남기고 / 그 소녀 데려간 세월이 미워라
 워어어어~~~

만섭 급브레이크를 밟는다.
'끼이익-' 차가 멈추고 남자 손님들 몸이 '왈칵~' 앞으로 쏠렸다가 뒤로 '툼!' 부딪힌다.

만섭 (고소하다) 다 왔습니다 청량리역!

장난끼 가득한 만섭의 얼굴에서,

- 서울역 앞

또 확하고 드러나는 만섭의 얼굴 그새 핏색해졌다.
옆자리에 앉은 여자 승객 엉망으로 취해 혀가 꼬부라졌다.

여자 승객 (엉엉) 내가 어디가 어때서? 아저씨 난 정말 모르겠어요. 지가 뭔
 데 날 차요? 내가 왜 차여야 돼요??
만섭 (혼잣말로) 대낮부터 술은.
여자 승객 예??? 난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도리도리)
만섭 (피곤하다. 건성으로) 모르겠어요?
여자 승객 네 정말 정말 모르겠어요.
만섭 난 알겠구만.

만섭을 찌려보는 여자승객. 만섭, 시선을 피한다.
갑자기 구역질을 하는 여자승객. 만섭 놀라 갓길로 핸들을 돌리며,

만섭 안돼! 차에선 안돼!!! 아가씨~~~!

갓길로 차를 세우는 다급한 만섭의 표정.
멀리서 핑! 핑!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3. 도로 / 오후

이번에는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는 만섭.
시위대 때문에 딱 막힌 도로.
페퍼포그차가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쏘아낸다.
'비상계엄 해제하라', '전두환은 물러가라', '유신잔재 처부수자' 등의 구호를 외치는 대학생
최루가스 때문에 시뻘개진 눈으로 연신 기침을 하는 만섭.
손님도 없는 빈차로 도로에 갇힌 만섭의 짜증이 폭발한다.

만섭 (치약을 바르며) 이게 서울의 봄이냐 그래 장관이다 장관이야! 오늘은 그냥
 넘어가나 했다. 데모하려고 대학갔어? 이걸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눈만
 뜨면 데모질이지.

핑!핑!핑! 다시금 최루탄이 쏟아지자, 시위대 대열이 무너진다.
사방으로 흩어지는 대학생들 틈으로 골목이 보이자,
만섭이 쩍싸게 골목 쪽으로 차를 들이민다.

만섭 호강에 겨워 저러는 것들은 싸그리 잡아다가 사우디로 보내야 한다니까. 지
 들이 펄펄 끓는 모래사막에서 죽도록 고생을 해봐야, 아... 우리나라가 참 살
 기 좋은 나라구나, 하고 정신들을 차리지.

그때, 대학생 하나가 골목 안쪽에서 갑자기 튀어나온다.

놀란 만섭이 핸들을 확 꺾으며 급브레이크를 밟는데,
끼이익- 쿵! 전신주에 부딪쳐 박살나버리는 사이드미러.

만섭 (후다닥 차에서 내리며, 버럭) 야!

놀라서 만섭을 쳐다보는 대학생. 하지만 전경들이 쫓아오자, 다시 도망치기 시작한다.

만섭 (대학생을 쫓아가려 하며) 야 이 새끼야!!! 너 어디가?! 너 일루 안와!!!!
(소리) (다급) 택시! 택시!

택시를 부르는 소리에 만섭의 고개가 자동적으로 돌아가는데,
이미 진통이 시작된 듯 한 만섭의 임신부와 남편이 허둥지둥 달려오고 있다.
박살난 사이드미러와 도망가는 대학生の 뒷모습을 번갈아 쳐다보며 갈등하는 만섭.

4. 만섭의 택시 안 / 오후

만섭의 택시가 골목을 가로지른다.

임산부 (식은 땀을 흘리며) 후... 후... 후...
남편 (아내를 따라서) 후... 후... 후... (울상을 지으며) 아저씨, 빨리 좀 가주세요.
만섭 (룸미러로 쳐다보면서) 원래 첫 애는 양수 터지고도 한참 있다 나온다니까
요. 우리 마누라가 분만실서만 12시간 있었는데, 첫 애는 다 그런답디다.

그때, 전경 중대 하나가 골목 사거리를 지나간다. 어쩔 수 없이 그 앞에 멈춰선 택시.

임산부 (비명) 아...악!!!!
남편 왜? 왜 그래? 애 나올거 같아? (울상) 아저씨, 어떡해요... 후... 후... 후...
만섭 아니, 내가 뭘 어떻게 해요.

여전히 전경 대열에 가로막힌 골목. 끝이 보이지 않는 전경들.

임산부 후... 후... 악.... 으악!!!!
만섭 에이씨... 이러다 진짜 차에서 애 받게 생겼구만. 꼭 잡으쇼.

만섭이 안되겠는지, 후진기어를 넣고는 그대로 차를 후진한다.
다음 사거리가 나올 때 까지 한참을 후진하는 만섭의 택시.
사거리에 들어서자마자, 순식간에 기어를 바꾸고는, 한 번에 골목 안으로 꺾어 들어간다.
계속 투덜거리면서도 동시에 능수능란하게 기어를 바꿔가며 좁은 골목을 달리는 만섭.

만섭 데모를 하고 싶으면, 지들 학교 안에서나 할 것이지! 왜 뛰쳐나와가지고, 여
러 사람 피해나 주고 말이야... 안그래요, 손님?

만섭이 동의를 구하듯 임신부의 남편을 쳐다보지만, 남편의 신경은 온통 아내에게 가 있다.

남편 후... 후... 후...
아내 후... 후... 으아아아악!!!!

5. 병원 앞 / 오후

임산부의 비명소리와 함께 끼이익- 하고 멈춰서는 만섭의 택시.

만섭 (스스로 생각해도 뿌듯) 카~ 운전, 진짜, 기가 막힌다! (생색) 다른 기사들
 같으면, 임신부 잘 태워주지도 않아요. 나니까, 우리 딸 때 생각나서, 태워드
 린 거니까.

남편 (가방에서 지갑을 찾으며)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만섭은 단돈 몇 백원이라도 더 줄지 모른다는 기대감에 차서 남편을 뻔히 쳐다보는데,
남편의 표정이 점점 이상해진다.

남편 (당황) 여보, 지갑 안 챙겼어?
임산부 가방 당신이 찼잖아.
만섭 거, 잘 찾아봐요. 어디 있겠지...
남편 (다시 뒤지다가) 아저씨, 제가 급하게 나오느라... 지갑을 놓고 왔나봐요.
만섭 (얼굴에 미소가 사라진다)
남편 제가 내일.
만섭 (말 자른다) 내가 그 소리에 한두 번 당한 줄 알아? 내가 그렇게 떼먹힌
 택시비만 모았어도, 벌써 집을 샀어, 집을!
임산부 으아... 으악!!!! (남편의 머리카락을 쥐어뜯는다)
남편 (깜짝 놀라) 으아..... 으악!!! (진짜 아프다) 아퍼.. 아퍼!!!!

애원하는 눈빛으로 만섭을 쳐다보는 남편. 간신히 수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내민다.

남편 아저씨, 제 명함이거든요, 으악!!!! 내일 전화주시면, 으악!!!! 따블 드릴게요.

만섭이 명함을 받아 보면, OO신문사의 이름이 박혀 있다.

만섭 (땀이 흥건한 임신부를 쳐다보고는, 한숨) 대신, 진짜 따블이에요. 쯤. 오늘
 은 일단 애부터 순산하시고.

임산부 부부의 뒷모습을 쳐다보던 만섭이 룸미러에 걸린 자신의 가족사진을 바라본다.

만섭과 아내, 그리고 어린 딸이 함께 찍은 촌스럽지만 단란한 느낌의 사진이다.

사진을 바라보던 만섭이 쓸쓸한 한숨을 내쉬고는 출발한다.

6. 카센터 / 저녁

카센터 사장이 사이드미러를 교체중이다. 짜증 가득한 얼굴로 이를 지켜보는 만섭.

사장 아니, 차라면 그렇게 별별 떠는 양반이 어찌다가 뺑미러를 해드셨대?
만섭 싸가지 없는 놈! 지 때문에 차가 망가졌으면, 변상을 하던가 최소한 죄송합
 니다, 인사 한마디는 해야 하는거 아냐? 남의 차를 이래놓고는 그냥 토끼더
 라니까. 대학생이면 뭐하냐고. 먼저 인간이 돼야지. 인간이!
사장 (교체가 끝났다) 알았어, 알았어. 내가 칠천원만 받을게. 됐지?
만섭 (거의 자동) 뭐가 이렇게 비싸? 오천원만 받아.
사장 에이, 또 이런다! 이번엔 진짜 안돼!! 누군 흠 퍼다가 장사하는 줄 아냐.
만섭 (5천원을 꺼내며, 능글) 주고 싶어도 이거 밖에 없는 걸 어떡해? 오늘 하루
 완전히 공쳤구만.
사장 (징글징글) 진짜 너무한다.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어쩔 수 없다) 대신,
 쉬는 날 와서, 점검 한번 받고 가. 내가 진짜 싸게 해 줄테니까.
만섭 점검은 무슨 점검? 내가 아침, 저녁으로 점검하는구만.
사장 들어올 때 보니까, 엔진도 골골 하던데 뭘. 60만키로 뛰었으면 (차를 툭툭)
 이거도 환갑 지났어. 차 퍼지고 나서 고쳐봐, 돈만 더 잡아먹지!
만섭 무슨 그런 재수 없는 소리를 하고 그래! 가뜩이나 오늘 열받아 죽겠구만.
 (5천원에서 천원짜리 한 장을 뺀다) 에이. 4천원만 받아.
사장 (기가 막히다) 에이! 이걸 아니지! 이게 부품값이 얼마데?!

카센터 사장의 말을 무시하고 서둘러 택시에 타는 만섭.

7. 주택가 / 밤

주택가에 차를 세우는 만섭. 차의 먼지를 털고는, 자동차 커버를 덮는다.

만섭이 골목에서 공차기를 하고 있는 아이들과 자연스레 어울려 공을 주고 받더니, 갑자기 공
을 멀리 차버린다. 아이들이 황당한 얼굴로 만섭을 쳐다보면,

만섭 (저리가라는 손짓) 여기서 공차는 거 아니야. 저쪽 가서 놀아.

툭툭거리며 공을 쫓아가는 아이들.

8. 만섭의 집 / 밤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만섭.

작은 마당 한가운데 2층으로 올라가는 돌계단이 놓인 아담한 2층집이다.

하지만 돌계단을 그대로 지나치는 만섭. 마당 끝의 비좁은 틈으로 들어간다.

좁은 틈으로 나 있는 초라한 현관문. 불이 꺼져 있다.

만섭 (불을 켜면서) 어디 갔나?

방안에는 만섭의 딸 은정(11)이 이불을 뒤집어 쓴채 누워있다.

만섭 (이불을 들추며) 우리 딸, 벌써 자는거야?

은정 (귀찮다는 듯, 베개에 고개를 파묻는다)

만섭 밥 먹고 자야지.

만섭이 은정을 일으키는데, 싫다고 버티는 은정. 턱 밑에 상처가 나 있다.

만섭 (화들짝) 이거 왜 이래? 누가 이랬어?

은정 (기어들어가는 목소리) 넘어졌어요...

만섭 (은정을 뺨히, 딱 봐도 거짓말이다) 내가 진짜 보자보자하니까... (벌떡 일어나다) 상구, 이 놈의 자식을!

은정 (만섭을 붙잡으며) 상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넘어졌어요.

만섭 (진짜 화났다) 너, 아빠한테 자꾸 거짓말 할래? 김은정! 너부터 야단 맞을 까?

고개를 가로챘는 은정.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진다.

9. 주인집 / 밤

만섭이 돌계단을 한걸음에 뛰어올라가, 2층 주인집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린다.

만섭 상구 어머니!!! 상구 어머니!!!! (황광황!) 문 좀 열어보세요.

만섭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현관문이 벌컥 열린다.

상구모 (기다렸다는 듯) 은정 아버지, 마침 잘 오셨네.

올라 올 때의 호기와는 달리, 만섭은 집주인의 얼굴을 마주하자 입이 떼지지 않는다.

엄마 뒤로 숨는 상구(11)의 얼굴에도 아주 작은 흉터가 나 있다.

상구모 (상구의 흉터를 가리키며) 이거! 이거 어떡하실거예요. 아니, 남의 집 귀한 장손 얼굴을 이래 놓으면 대체 어찌자는 거예요?

만섭 (당황) 아니, 그게... 우리 은정이라도...

상구모 (말 자른다. 짜증) 어휴, 드세다, 드세다, 난 은정이처럼 드센 여자엔 처음 본다니까. 그게 다, 엄마 없다고 은정아버지가 너무 오냐오냐 하니까,

만섭 (울컥) 상구 어머니. 말씀이 좀...

상구모 제가 뭐 틀린 말 했어요? 말이 나온 김에, 내가 은정이네 사정, 뻔히 아니까 아무 말 안하고 있었는데... 사글세가 석 달이나 밀렸으면, 최소한 언제 주겠다고 일언반구라도 있어야지. 어휴, 그래놓고 우리 애 얼굴을 이래 놓으면, 우리 상구 아빠가 알아봐요. 대뜸 은정이네 내보내란 소리부터 안하겠어요?

만섭 (을 것이 왔다) 죄송합니다, 상구 어머니. 제가 최대한 빨리.

상구모 어휴, 이제 난 몰라요. 우리 상구 아빠랑 직접 얘기하세요. (문을 닫으려다 말고) 그리고 은정이 야단 좀 치세요. (상구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진짜 속상해서...

만섭 (고개 숙여) 죄송합니다.

황! 소리와 함께 닫아버린 문.

만섭이 맥없이 돌아서는데, 마당 끝에 서 있는 은정과 눈이 마주친다.

만섭이 당황하는 사이, 집으로 들어가 버리는 은정.

10. 만섭의 집 / 밤

만섭이 크게 호흡을 가다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간다.

만섭 (괜히 오버해서 쿵쿵) 와... 배고파, (쿵쿵) 냄새 죽인다!

만섭이 힐끔 쳐다보면, 은정은 아무 대꾸 없이 부엌에서 저녁을 차리고 있다.

만섭이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뒤축이 접힌 은정의 운동화가 눈에 들어온다.

만섭 (접힌 뒤축을 펴면서) 김은정! 아빠가 신발 꺾어 신지 말랬지?

은정 ...

만섭 또 대답 안 하지?

은정 그 신발 이제 작단 말이에요.

만섭 ...

은정 저녁 드세요.

만섭 (울컥) 넌 그러면, 신발 사달라고 아빠한테 말을 해야지!

- 방 안.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밥을 먹는 만섭과 은정.

만섭이 은정의 눈치를 살피다가, 괜히 오버해서 국을 그릇째 마신다.

만섭 까... 시원~하다. 오우, 우리 딸 이제 시집 가도 되겠는데?

은정 그거, 상구 아줌마가 갖다 주신거예요.

만섭 (당황) 아... 그렇지?! 어쩐지.. 좀 짜더라.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는 은정을 쳐다보는 만섭. 한없이 안쓰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다.

은정의 머리카락이 반찬에 닿을락 말락하자, 만섭이 은정의 머리를 넘겨준다.

머리끈을 가져와 머리를 묶는 은정.

만섭 갖고와. 아빠가 해줄게.
은정 제가 할래요.
만섭 (다가가며) 이거봐. 다 빠져나왔잖아.

만섭이 은정의 머리를 곱게 빗어 넘기고는, 머리끈으로 리본까지 만들어 예쁘게 묶어준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은정 우리 이사가야돼요?
만섭 넌 아무 걱정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아빠가 알아서 할테니까.
은정 아빠, 잘못했어요. 앞으로, 상구랑 안 싸울게요.
만섭 (마음이 아프다. 은정을 돌려 앉히고는) 김은정! 아빠랑 수요일날 소풍갈까?
은정 (쳐다보면)
만섭 부처님 오신날이라, 학교 안가잖아.
은정 (절레절레) 아빠, 돈 벌어야지. 빨간 날, 손님 많잖아요.
만섭 (콩 쥐어박는 시늉) 요게 보자보자하니까, 지 엄마보다 더 해...
은정 (그제서야 씨익 웃는다)
만섭 (은정을 끌어안으며) 어구, 우리 딸... 누구 딸인데 이렇게 예뻐?

은정을 다독거리는 만섭의 마음이 복잡하다.

11. 만섭의 집 / 밤

INS. 깊은 밤. 고요한 골목. 만섭의 집 전경.

스탠드를 켜놓고, 오늘 번 돈을 정리하는 만섭. 단돈 1만원이 되지 않는다.
가계부 사이의 각종 고지서들. 만섭이 깊은 한숨을 내쉬는데,
나지막이 틀어둔 라디오에서 광고가 끝나고, 뉴스가 시작된다.

(뉴스) 18일 0시를 기해 전국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계엄포교 제 10호가 발휘되면서, 18일 0시부터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되며, 전국의 모든 대학교는 당분간 휴교 조치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 이탈이나 태업 및 파업 행위는 일체 금지됩니다.
만섭 (심란) 이거, 이거... 또 손님 뚝 끊어지는거 아니야?

그때, 잠결에 뒤척이는 은정.

만섭이 황급히 라디오를 끄고, 은정에게 이불을 덮어준다.
은정의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고는, 애정 가득한 손길로 은정의 얼굴 쓰다듬는데,
그 위로, 불길한 느낌의 음악이 시작된다.

12. 서울 시청 / 밤

시험 인쇄된 신문을 빠르게 넘겨보는 대령.

화면 가득, 곳곳에 붉은 색 밑줄이 그어져 있는 기사들이 보인다.

재야인사 긴급검거를 포함한 계엄군의 행보와, 대학생 시위 등을 다룬 기사들이다.

다른 신문의 첫 장을 넘기면,

신문 한 면에 가득한 붉은색 X표시. ‘광주’라는 단어가 지워져 있다.

대령 (인상 구기며) 뭐야 이걸? (신문 1면의 신문사 이름을 확인한다)

장교 이미 조치 했습니다.

대령 하여튼 이 빨갱이 새끼들... 외신은?

장교 내일 김재규 재판으로 전부 몰릴 겁니다.

대령 각별히 신경쓰고. (아까의 신문을 다시 흔들며, 짜증) 뭐니 이게? 위에서 지시가 있기 전까진, 대한민국에 광주란 곳은 없는거다. 알지?

장교 네!

- 복도

장교가 복도로 나오자,

시쇄판(초판대장)을 들고 대기중이던 각 언론사 편집부장들이 긴장한다.

복도 끝에 걸린 흑판으로 다가가는 장교. 서류철을 펼쳐들고 ‘보도지침’을 쓰기 시작한다.

- 계엄군에 대한 일체 부정적 기사는 모두 불가.
- 학생들 시위를 정당화하거나 지지하는 식의 기사는 모두 불가.
- 정부 또는 혁신노선을 주장 선동하는 용공분자를 정치범으로 취급 옹호하는 내용 불가.
- ‘광주’ 언급 일체 불가.

일제히 각자의 수첩에 보도지침을 받아 적는 언론사 편집부장들.

13. 김포공항 / 아침

사람이 거의 없는 김포공항. (1편의 인천국제공항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입국심사대에 선 피터.

공항 직원이 피터의 여권을 펼쳐보는데, 수 많은 나라의 도장들이 빼곡하다.

직원 (피터를 힐끔 쳐다보며, 영) 피터씨, 한국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피터 (영) 서울에서 목회활동 하시는 목사님 초청으로 왔습니다.

피터의 입국선고서를 확인하는 공항직원. 직업란에 ‘Missionary’라고 적혀 있다.

피터 (영) 선교사입니다.

14. 국도극장 앞 / 낮

제법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극장.

영화 <춘자는 못말려> 여주인공의 선정적인 모습이 그려진 포스터가 커다랗게 걸려 있다.

극장 앞에 멈춰서는 택시, 피터가 내린다.

주변을 살피고는, ‘초원다방’이라는 간판이 붙어있는 극장 옆 허름한 건물로 들어간다.

15. 다방 안 / 낮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 다방 레지와 손님들이 일제히 피터를 쳐다보는데,

구석에 혼자 앉아 있던 이기자(40대 중반)가 피터에게 손을 흔든다.

다방레지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면, 피터의 커피에 동동 떠 있는 계란 노른자.

황당한 얼굴로 쳐다보는 피터에게 찌나게 윙크를 날리고 돌아서는 다방레지.

이기자 (수첩을 건네며, 영) 나 금방 들어가 봐야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수첩에 적힌 보도지침들(썬11) 옆에는, 이기자가 영어로 옮겨놓은 문장들이 보인다.

그 중, <‘광주’ 언급 일체 불가 - ‘Whatever mentioning GWANG-JU is not allowed.’ >

피터 (영) 그럼, 광주 관련 기사는 전혀 없는거야?

이기자 (주변을 살피고는, 영) 광주 지역신문인데...

이기자가 들고 온 신문을 펼치는데, 신문 한 면이 거의 백지로 비어있다시피 하다.

피터 (의아, 영) 백지잖아?

이기자 (영) 검열에서 찢린거지.

피터 (영) 통째로? 상황이 어느 정도길래?

이기자 (영) 우리도 파악이 안돼. 19일 03시에 사망자가 나왔다는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지금은 아예 전화까지 끊겼어.

피터 (쳐다보면)

이기자 (영) 전두환이 이젠 자기가 청와대 들어가겠다는거 아니겠어?

피터 (영) 다른 외신들은?

이기자 (영) 오늘 김재규 재판 있잖아. 다들 거기 갔지. 자네도 거기서 가야지.

피터 (영) 광주로 가야겠어. 전주에 신부로 있는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 일본으로. 광주에 있던 주한 외국인들 모두 외부로 나가라 했다고. 광주에 뭔가 일이 터진 것 같아.

이기자 (영) 광주까지 어떻게 가려고? 들어 올 때 별일 없었어? 보안사 리스트에 자네 이름도 있을텐데?

피터 (영) 나 일부러 해외공보관도 안 들리고 바로 온거야. 외신기자 취재허가 요

청도 안 했고, 공항에서 입국신고도 기자라고 안 했으니까, 당분간은 나 들어온 것도 모를거야.

생각에 잠긴 피터가 창 밖을 쳐다본다.

16. 도로 / 낮

만섭이 손님을 내려주고는, 근처 한적한 그늘에 차를 댄다.
집에서 가져온 주먹밥을 먹으며, 돈지갑의 지폐를 꺼내 세어보는데,
갑자기 덜컥덜컥. 누군가 운전석 차문을 거칠게 잡아 당긴다.
놀란 만섭이 부랴부랴 돈과 돈지갑을 숨기고 쳐다보면,
재밌어하며 웃고 있는 만섭의 친구, 최기사다.

17. 기사식당 / 낮

지글지글 끓고 있는 돼지불백. 만섭이 푸짐하게 상추쌈을 싸서 흡입한다.

최기사 으이구. 궁상도 궁상도...
만섭 (한입 가득, 웅얼웅얼) 계산, 니가 한다 그랬다.

갑자기 만섭의 등짝을 째- 소리가 나게 때리는 식당 주인.

만섭 (사레 들려 켹켹) 아, 이모!!!!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리다는데.
식당주인 니가 개새끼가? 누 쫓아오나, 천천히 좀 먹거래이.
만섭 후딱 먹고 나가서 돈 벌어야지.
식당주인 으이구, 인간아. (종업원에게) 여기 공기밥 하나 더 갖고 온나. (만섭에게) 반찬 쪼매 싸줄테니까, 그거나 챙겨 가고.
만섭 낵뒤요. 번번이, 사람이 염치가 있지.
최기사 이모, 나는? 애만 입이고, 나는 주둥이가? 왜 자꾸 차별하는데?
식당주인 과부가 홀아비 챙기는거 당연한거 아이가. 까묵지 말고 챙겨가래이.
만섭 (주방으로 가는 식당 주인 뒤에 대고) 이모, 고맙습니다.
최기사 (괜히) 내 기분 나빠 이 밥 못 사겠다. 밥값 니가 내라.
만섭 (우적우적, 쿨하게) 그래. 내가 살게.
최기사 (의아) 어? 진짜?
만섭 대신, 나 돈 좀 꿔주라.
최기사 그럼 그렇지, 얼마나?
만섭 십만원.
최기사 십만원이나? (난처) 나도 요즘 우리 마누라 감시가 워낙 심해갖고... 근데 니 아직도 빚 다 못 갚았나?
만섭 사글세가 쫘 밀렸는데... 은정이 이 기지배가 주인집 아들내미랑 또 싸웠
다. 집 하나 있다고 유세는 진짜.

그때, 식당에 들어서는데 회사택시 기사. 아는 얼굴들이 보이자, 자연스레 그리로 가서 앉는다.

회사택시기사 이모, 여기 아무거나! 빨리 나오는 걸로.
식당주인 우물 가서 숭늉 찾는기도 아니고. 고마 기다리라.
회사택시기사 내 오늘 좀 바빠서 그래요.
기사1 바빠게 뭐 있다고? 밥 먹고 (화투 섞는 시늉) 한 판 쳐야지?!
회사택시기사 많이들 치세요. 나는 밥 먹고 국도극장 갑니다. (자랑스레) 장거리 뛰러.
기사1 뭘 소리야? 국도극장이랑 장거리랑 뭘 상관인데?
회사택시기사 몰라. 그리로 오라대.
기사2 장거리 어디?
회사택시기사 전라도 광주. 지금 갔다가, 오늘 통금 전에 다시 서울로 와야 한다고.
기사1 오~ 계엄인지 뭘지 땀에 손님도 확 줄었드만, 껌수 하나 제대로 물었네. 얼마 준다든?
회사택시기사 (씨익) 십만원.
기사들 (놀라서) 십만원?

만섭과 최기사도 십만원이라는 얘기에 놀라 쳐다본다.

기사1 어느 호구가, 하루에 택시비를 십만원이나 준다드나?
회사택시기사 외국 호구다.
기사1 오~~~~ 니, 영어도 할 줄 아냐?
회사택시기사 너는 운전을 손으로 하지, 입으로 하나? 운전하는데 영어가 뭘 상관인데?

마냥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만섭과 최기사.

최기사 씨바, 외국인이면 팁도 줄텐데. 십만원에 팁까지 하면... 어휴, 저런 건 우리 같이 외국물 쯤 먹어본 사람이 가야하는 거 아니냐?

최기사가 만섭을 쳐다보면, 이미 텅 비어 있는 만섭의 자리.
만섭은 이미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택시에 타고 있다. 눈이 휘둥그레지는 최기사.
회사택시 기사는 아무것도 모른채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한다.

18. 주차장 - 도로 / 낮

주차장을 나가던 만섭이 식당 입구에 빼딱하게 세워져 있는 회사택시를 힐끔 쳐다본다.

만섭 (혼자 수인사) 아임 쏘리! 천~천히 드시고 가세요.

도로에 들어서는데 만섭의 택시.

만섭 (집주인 흥내) 어휴, 상구어머니, 상구 야단 좀 치세요. 상구는 대체 누굴 닮아서 성격이 그 모양이래요? 엄마 닮았나?! (생각만 해도 통쾌하다) 흐흐흐, 내가 진짜, 십만원만 받아봐. 상구 이 놈의 버르장머리를 그냥!

19. 국도극장 앞 도로 / 낮

극장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만섭. 하지만 외국인은 보이지 않는다.
만섭이 담배를 피우며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만섭의 택시 뒤에 회사 택시 한 대가 멈춰선다.
당황한 만섭이 뒤를 돌아보면, 회사택시에서 중년 신사가 내린다.

만섭 (안도) 휴~~ 이래서 죄 짓고는 못 사는건데...

그때, 극장 옆 건물에서 나오는 피터와 이기자의 모습이 보인다.
황급히 담배를 끄고, 냄새 빠지라고 공중에 양손을 휘젓는 만섭.

만섭 (후다닥 내리며) 택시 부르셨죠?
이기자 (의아한 표정으로 만섭의 택시를 쳐다본다) 어? 택시회사에다 전화했는데, 어떻게 개인택시가 오셨네요?
만섭 (당황) 아, 그게... 거기 회사에 차가 다 나가갔고, 빈 택시가 없다고 해서요.
이기자 그래요? 얘기는 다 들으셨죠?
만섭 (눈치를 살피고는) 예... 광주 갔다가 통금 전에 서울로 다시 오면, 10만원 주신다고... 맞죠?
이기자 네. 맞습니다.
만섭 (미소가 번진다)
이기자 여기는 피터라고. 독일 기자구요. 한국말을 전혀 못 하니까, 잘 좀 부탁드립니다.
만섭 (큰소리) 그럼요. 걱정을 마십시오. 제가 또 영어도 조금 하거든요. 사우디에서 5년이나 있어갔고.
이기자 아, 그러십니까? 오히려 잘 났네요.
만섭 (뿌듯) 그니까요. (피터에게) 돈워리, 돈워리. (자신을 가리키며) 아이, 미스타킴! 나랑 투게더, 레쓰고 광주!!!
피터 (반갑, 악수를 청하며, 영) 미스타킴! 잘 부탁드립니다.
만섭 (손을 옷에 문질러 땀을 닦고는, 두 손으로 공손히) 아, 예... 미투, 미투.

피터가 이기자와 인사를 나누고 택시에 타면, 만섭이 서둘러 택시를 출발한다.
이기자도 택시를 잡기 위해 다가오는 빈 택시를 향해 손을 흔드는데,
이기자 앞에 회사 택시가 멈춰선다.

회사택시 (차창을 내리고) 다른 차 타세요. 이 차, 예약합니다. (두리번두리번)
이기자 (뭔가 이상하다) 예약이요? 어디요?
회사택시 (왜 그러냐는 듯) 왜요? 이 차, 광주 갈건데요.

이기가자가 만섭의 택시가 사라진 방향을 쳐다보지만, 이미 만섭의 택시는 보이지 않는다.

20. 서울시내 도로 / 낮

만섭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피터를 힐끔거린다.

만섭 유, 코리아, 펠스트 타임?
피터 (영) 작년에도 한번 온 적 있다.
만섭 (과장되게) 오, 리얼리? (하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피터 ...
만섭 (생각났다) 아, 웨얼 알 유 프롬?
피터 (영) 독일.
만섭 (반사적으로) 오, 리얼리?.. (빨쭈) 아, 맞다. 독일기자랬지. 마이 프렌드, (탄
 개는 시늉) 절머니.
피터 (시큰둥) 알고 있다. 독일 광부와 간호사 중에 한국사람들 많다.
만섭 (대화가 되자 신났다) 나는 사우디. 사우디 알아? 두유 노우 사우디? 잇츠
 베리베리 핫. (땀 닦는 시늉) 땀 뻘뻘. 아이 드라이브 사우디 트럭. 모래땅에
 서 드라이브, 디진다. 쏘 타이어드. 디스 택시, 사우디 머니.
피터 (관심없다, 영) 광주까지 얼마나 걸리냐? 빨리 갔으면 좋겠다.
만섭 돈워리! 아이, 베스트 드라이버. 광주, 멀~~~어. 한숨 자. 슬립. 슬립.

심각한 얼굴로 차창 밖을 쳐다보는 피터.

만섭이 룸미러를 통해 그런 피터를 슬쩍 쳐다본다.

만섭 으이구! 이쁜거!!!! 며칠 더럽게 재수가 없더니, 이럴려고 그랬네, 이럴려구...

십만원을 받을 생각에 신난 만섭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시지 않는다.

고속도로 방향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보이자, 흥얼거리며 차선을 옮기는 만섭.

만섭 (노래)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모두 비켜라
 / 안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 쟁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 쟁하고 해뜰
 날 돌아 온단다

21. 고속도로 / 낮

한산한 고속도로. 간간이 트럭 몇 대가 만섭의 택시를 지나쳐 갈 뿐이다.

흥겨운 음악에 맞춰, 고속도로의 모습이 부감으로 보여진다.

만섭의 택시를 간간이 지나치던 트럭들도 하나둘 사라지고,

어느새 텅 빈 고속도로 위에는 오직 만섭의 택시 뿐이다.

22. 호남 고속도로 / 낮

만섭의 택시가 호남고속도로에 들어서자, 광주 방향 이정표가 보인다.

만섭 (이정표를 가리키며) 광주! 광주!
피터 (영) 오, 광주!

광주라는 얘기에 장비를 꺼내기 시작하는 피터.
얼마 지나지 않아, 눈 앞에 ‘출입통제 出入統制’라고 적힌 커다란 팻말과 함께,
고속도로 차선 위에 지그재그로 대형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다.

만섭 (당황해서 속도를 늦추며 두리번) 뭐지, 이걸? 가도 되는건가?
피터 (영) 왜 그러냐? 빨리 가자!
만섭 어... 어... 예스... 예스.

피터를 쳐다보면, 피터는 고속도로의 바리케이드를 촬영중이다.

만섭 (혼잣말) 뭘 찍는거야? (피터에게) 왓 픽쳐? (절레절레) 왓 카메라?
피터 (대답없이 계속 촬영)
만섭 사람이 말을 하면, 뭘 대꾸가 있어야지... 길은 또 왜 이따위래. 가라는거야,
말라는거야.

불안한 얼굴로 바리케이드를 피해가며,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만섭.

23. 검문소 / 낮

바리케이트마저 사라진 텅 빈 고속도로를 빠르게 달리는 만섭의 택시.
‘광주(光州) 30km’를 알리는 이정표와 함께, 길 한가운데 설치된 검문소가 보인다.
검문소 뒤로 도열해 있는 탱크와 장갑차들, 그리고 무장한 군인들.

만섭 뭐야... 전쟁이라도 났어?

만섭이 긴장한 얼굴로 피터를 쳐다보면,

피터 (다급, 영) 내가 기자라는 말은 안 하는게 좋겠다.
만섭 (뒤를 돌아보며) 뭐라고? 슬로우.

황급히 카메라를 옷으로 가리는 피터. 그 모습에 만섭은 더욱 불안해진다.

군인1 (만섭의 택시를 세우며) 정지!
만섭 (차 문을 내리고, 애써 태연하게) 수고가 많으십니다.

군인1 (만섭의 택시 번호판을 힐끔 보고는) 서울에서 오셨습니까?
 만섭 여기 외국 손님이 광주에서 누굴 만나기로 했다고...
 군인1 (매서운 눈빛으로 피터를 쳐다본다)
 피터 (영) 무슨 일입니까?
 군인1 (만섭에게) 여기서부터 통제구역입니다. 돌아가십시오.
 군인2 (다가오며, 버럭) 진입금지 팻말 못 봤어?
 만섭 (짖었다) 그게... 뒤에 손님이 광주 간다고.
 군인2 이 새끼가, 지금 죽고 싶나? (피터를 노려보며)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
 피터 (만섭에게 다급, 영) 지금 군인들이 뭐래는거냐? 나한테 뭐라는 거 같은데.
 군인2 (만섭에게 따진다) 저 새끼, 지금 뭐래는거야?
 만섭 (당황) 저.. 돌아가잡니다. 자기가 잘 못 온거 같다고... (다짜고짜) 충성!

경례와 함께 그대로 전속력으로 후진하는 만섭. 한 번에 차를 꺾어 국도로 빠진다.

24. 국도 / 낮

피터 (영) 미스타킴, 지금 어디 가는거냐? 광주에 빨리 가야 한다.

한적한 국도 변에 차를 대는 만섭.

만섭 광주, 노! 나우, 고 서울.
 피터 (영) 서울이라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거냐? 안된다. 광주로 가야 한다.
 만섭 그건 니 사정이고, 내가 안 가겠다는게 아니라, 솔져, 광주 노!
 피터 (영) 지금 광주에 안가면, 난 택시비를 한 푼도 줄 수 없다.
 만섭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가?)
 피터 (힘주어) 노 광주, 노 머니!
 만섭 이 새끼가 지금 장난하나, 서울에서 여기까지 기름값만해도 얼마데, 노 광주 노 머니라는거야. 솔져가 노 광주라고 했다니까.
 피터 (영) 그래, 노 광주, 노 머니!
 만섭 씨팔. 나보고 어찌라고!!!!

25. 국도 인근 / 낮

두리번거리며 샅길을 찾던 만섭이 밭에서 소를 끌고 쟁기질을 하는 노인을 발견한다.
 농부 앞에 차를 세우는 만섭.

만섭 어르신!!! 길 좀 여쭙게요.
 농부 (쳐다보면)
 만섭 근처에 광주 가는 샅길, 없습니까?
 농부 (단칼에) 읍어라.
 만섭 어르신, 그럼 혹시 마을에 아실만한 분이랄도.

농부 (말 자른다) 광주는 뭇할라고? 시방, 이쪽에 군인들 못 봤소? 앵간하면, 그냥 돌아가쇼잉.

만섭 제가 지금 광주 못 가면, 오늘 하루 완전히 공치게 생겼거든요. (간절) 어르신, 저 진짜 광주 꼭 가야 됩니다.

농부 (잠시 갈등하더니) 우리 이장이 광주는 한동안 절대루 가면 안된다겠는디... 저그, 언덕너머 질러가는 길이 하나 있긴 한데...

만섭 (반갑) 그게 어딘데요?

26. 샛길 / 낮

꼬불꼬불 좁은 비포장도로를 덜컹거리며 달리는 만섭의 택시.

만섭 (차가 덜컹거리자 오만상) 으휴... 길 꼬라지 봐라. 차에 기스 다 나겠네. (툭툭) 인마, 넌 진짜 오늘 기사 잘 만난 줄 알아. 딴 사람 같았어봐, 돈이고 뭉고, 벌써 서울 갔지. (피터와 눈 마주치자) 히어, 노 솔져.

곡선길을 따라 커브를 도는데,
정면에 군인들 트럭 한 대가 떡하니 세워져 있다.
이제 막 도착한 듯, 모래 주머니를 쌓아 바리케이드를 만들고 있던 군인들이 일제히 만섭의 택시를 쳐다본다. 당황하는 만섭. 피터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다.

만섭 대체 뭘 일이 났길래, 뭐 이런데까지 막고 그러냐... 간만에 딸라 좀 벌어보겠다는데.. (뭔가 생각났다!) 유, 비즈니스맨, 딸라, 계약서, 계약서가...

부랴부랴 대쉬보드에서 차량 등록증 같은 서류를 꺼내 흔들어보이는 만섭.

만섭 (다급) 이런거... 베리베리 임포트트 페이퍼. (서명하는 시늉) 비즈니스 싸인, 유, 이거 놓고 왔어, 광주에. 오케이?

피터가 뭔가를 물으려 하는데, 군인이 차창을 두드린다.

만섭 (냉큼 차에서 내리며) 충성! 제가 지금 김포 공항에서 오는 길인데요.
군인 (쳐다보면)
만섭 (피터르 가리키며) 저 양반이 우리나라 물건을 사다가 미국에 파는 일을 한다는데, 미국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보니까, 서류가 없더라고요.
군인 (뒷좌석의 피터를 쳐다본다)
만섭 그게 없으면, 우리나라 물건을 미국에 못 판다잖아요. 제가 그 얘기에 애국심을 안고, 공항에서 여기까지 막 밟았다니까요. 막! 제가 사우디서 5년이 나 있어봐서, 딸라 버는게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눈치) 그러니까 잠깐만 들어가서, 서류만 가지고 바로 나올게요. 수출을 해야 딸라를 벌고, 딸라를 벌어야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군인이 망설이는데, 피터도 초조한 듯 차에서 내린다.

군인 앞에 선 피터. 군인보다 키가 머리 하나는 더 크다. 괜히 긴장하는 군인.

피터 (속사포, 영) 왜 못 들어가게 막는거냐? 내가 광주에서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그만 서류를 빼놓고 왔다. 나의 보스는 지금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다. 나 그 서류가 없으면 보스한테 죽는다. 그러니까 들어가게 해달라.

군인 (멍하다가, 만섭에게)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만섭 (자기도 못 알아들었다) 저... 그제... 아!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서류라는 데요. (피터에게) 베리베리 임포턴트 페이퍼, 오케이?

피터 (영) 예스, 베리베리 임포턴트 페이퍼.

군인 (잠시 갈등하더니) 열어줘. (만섭과 피터에게) 대신, 바로 나오셔야 합니다. 지금 광주 시내가 폭도들 때문에 많이 위험합니다.

만섭 (긴장) 폭...폭도요?! (군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금방 나올건데요, 뭐. (경례) 충성!

군인들이 길을 터주자, 만섭이 서둘러 빠져나간다.

27. 셋길 인근 도로 / 낮

셋길을 빠져나오며, 연신 뒤를 확인하는 만섭과 피터. 둘의 시선이 마주친다.

피터 (만섭에게 엄지 척) 유, 지니어스.

만섭 지니어스? 아! 예스, 아이 지니어스. 짜식이 이제 좀, 사람 볼 줄 아네.

어깨를 으쓱하던 만섭이 갑자기 차를 세운다. 의아한 얼굴로 만섭을 쳐다보는 피터.

만섭 (한 손을 내밀며) 헛드레드 싸우전드 원. 나우.

피터 (영) 미스타킴! 택시비는 서울서 주기로 약속했었잖아?!

만섭 (말 자른다) 폭력시위래서 위험하다잖아?! 근데, 이따 뭘 일이 생길 줄 알고. 내가 여태 떼먹힌 택시비만 다 받았어도 집을 샀어, 집을... 마이 하우스!

피터 (영) 미스타킴 집이라니?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거냐?

만섭 광주 댄저러스. 그러니까 선불! 퍼스트머니, 아니 레이디퍼스트니까, 머니퍼스트. 코리아 택시 스타일. 나우 노머니, 아이 고 서울. 유 초이스.

피터 (어이 없는 표정으로 만섭을 노려보면)

만섭 (아예 시동을 꺼버린다) 인마, 니가 째려보면 어쩔건데. 노머니 노광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싸가지 없는 놈. 너, 사람 잘 못 봤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돈 한푼 못 받고 갈거 같으냐? (쳐다보며) 유, 초이스!

피터가 결국 지갑을 꺼내들자, 만섭이 회심의 미소를 짓는데,

피터 (5만원만 꺼내며, 영) 나머지 절반은 서울에서 주겠다. (힘 주어) 유 초이스!
 만섭 (당했다!) 싸가지 없는 놈... 그새 그걸 따라하냐... (냉큼 돈을 챙긴다) 그래, 5만원이 어디냐! 아이 초이스! 렛쓰고 광주, 오케이?
 피터 ... 오케이.
 만섭 오케바리! (다시 시동을 걸며) 쪼잔한 새끼, 눈 치켜 뜨기는. 눈깔을 그냥 확 뽑아버릴까보다. (씨익) 너, 내가 하는 말이 뭘 말인지 하나도 모르지? (피터와 눈 마주치자) 아니, 렛쓰고 광주하자고!

뿌듯한 얼굴로 택시를 출발하는 만섭.
 달리는 만섭의 택시가 흠바람을 잔뜩 일으킨다.
 뿌옇게 퍼지는 흠바람으로 화이트 아웃 되는 화면.

28. 광주 시내 / 낮

광주 시내를 서행하는 만섭의 택시.
 운전하는 만섭의 시선으로 황폐한 광주 시내의 모습이 보인다.
 굳게 셔터를 내린 가게들, 곳곳에 보도블럭이 깨져있는 인도, 쓰러진 공중 전화 부스.
 인적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다. 게다가 담벼락 곳곳에 붉은색으로 커다랗게 써있는, '계엄령을 해제하라', '민주주의 사수하자' 등의 구호들.

만섭 (불안) 이게 뭘 일이래...
 피터 (주변을 촬영을 하며, 영) 잠깐 스톱! 미스타킴, 저기 뭐라고 써 있는거냐.
 만섭 (차를 세우고) 뭐가?

만섭이 쳐다보면,
 '희망의 80년대로'라는 글자만 남은 현수막이 불에 탄 채, 도로 한가운데 나뒹굴고 있다.

만섭 음... 호프, 호프!
 피터 호프?
 만섭 그러니까, 80년대면, 에이티, 에이티.... 호프 에이티.
 피터 (못 알아듣겠다)
 만섭 (답답) 그런게 있어... 그냥 쓰레기야. 쓰레기.

그때 갑자기, 뒤에서 자동차 경적소리가 울린다.
 트럭 한 대가 만섭의 택시를 향해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

만섭 (불안) 뭐야...
 피터 (영) 미스타킴! 스톱! 잠깐 세워봐라.

카메라를 챙겨 들고 차에서 내리는 피터.
 트럭이 만섭의 택시 옆으로 다가와 멈춰선다.

시위대1 어서 왔소잉? 어디, 외국 방송국에서 나오셨는갑네.

시위대2 하이.

피터 (영) 하이.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는 시위대들.

차 안의 만섭이 못마땅한 얼굴로 시위대를 쳐다본다.

만섭 (쫄쫄) 대학생들이나 되갓고... 어떻게 나보다 영어가 짧어.

그때, 트럭에 타고 있던 대학생 구재식(22)이 다가온다.

재식 (영) 어디서 오셨습니까? 기사십니까?

피터 (영) 독일 ARD-NDR 방송국에서 나온 피터라고 합니다.

재식 (사람들에게) 우리를 찍을라고잉, 저그 독일서 기자님이 오셨구만요!!!

환호하며 박수치는 사람들. 그때, 시위대 1이 차에서 내리는 만섭을 쳐다보더니,

시위대1 아따, 서울서 여까지 택시타고 오셨는갑네. 우리 먼길 오신 서울 택시 기사님께도 박수!!!!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가 당황스럽긴 해도, 괜히 우쭐해지는 만섭.

만섭 (나서며) 멀기는 디게.

피터 (말 자르고, 영)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만섭 (못마땅한 얼굴로 피터를 쳐다본다)

재식 (영) 부상자가 있어 병원에 들렸다가, YMCA 앞으로 갈 겁니다.

피터 (머리에 붕대를 대충 감은 남자를 쳐다보며, 영) 잠깐 인터뷰를 좀 하고 싶은데...

재식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디요?

“오~~~!”, “났네, 났어”, “출세했시아”... 휘파람을 불며, 박수치는 시위대.

붕대남 아따, 이럴 줄 알았으면, 세수라도 좀 하고 올 것인디.

시위대가 트럭에 자리를 만들어주자, 피터가 가뿐히 트럭에 오른다.

시위대1 기사님도 타쇼.

상인2 예이, 뭘소리여. 택시 기사님은 택시 몰아야제.

피터 (만섭을 쳐다보면)

만섭 (얼른 가라고 손짓) 돈워리, 돈워리! 내가 바짝 따라갈테니까, 고고! 미투.

시위대2 그럼 따라오쇼잉. (트럭 옆면을 두드리며) 오라이~ 오라이~~~

트럭이 출발하자, 만섭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29. 도로 / 낮

트럭을 쫓아가는 만섭.

트럭 뒤에서 우회전 할거라고 싸인을 보내자, 만섭이 미소와 함께 알았다는 수인사를 건넨다.

만섭 (표정 바뀌며) 어쩐지 하루에 십만원 준다 할 때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만섭이 우회전하는 트럭을 힐끔 쳐다보고는, 그대로 유턴한다.

30. 도로 / 낮

트럭을 타고 달리는 시위대, 카메라를 의식하며 힘차게 노래를 부른다.

사람들 (노래) 우리들은 정의파다 홀라홀라 / 같이 죽고 같이 산다 홀라홀라 / 무릎
 을 꿇고 사느니보다 / 서서 죽기를 원한단다 / 우리들은 정의파다

피터가 그런 시위대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다.

31. 광주시내 / 낮

아까의 길을 되돌아가는 만섭. 황폐한 광주의 모습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만섭 저번처럼 괜히 데모하는 것들 옆에 있다 차라도 다치면, 누가 책임질건데?
(소리) 택시! 여보소, 택시!!!

택시 부르는 소리에 만섭의 고개가 자동적으로 돌아가는데,

골목 안 쪽에서 높고 야윈 노파가 만섭의 택시를 향해 절룩거리며 다가오고 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초라한 행색의 노파를 보고도 그대로 지나쳐버리는 만섭.

만섭 (룸미러를 쳐다보며 중얼) 할머니, 광주 택시 타세요. 이건 서울 택시입니다.

룸미러 속 노파는 숨이 가쁜지, 위태로운 걸음을 멈추고는 힘들어한다. 신발도 없이 맨발이다.

만섭 (짜증) 에이씨~~ 진짜!

결국 후진기어를 넣고 그대로 후진하는 만섭. 노파 앞에 차를 세운다.

만섭 (차창을 내리고, 까칠) 할머니, 차비는 있어요?

32. 택시 안 / 낮

잔뜩 겁에 질린 노파. 반쯤 낮이 나가있다.

만섭 병원엔 누가 있는데요?

노파 (울먹) 누가 우리 막둥이 닮은 사람이 군인한테 대굴뺨이 깨져갖고 병원에 가더라고...

만섭 (쳐다보며) 막둥이가 대학생이에요? 데모하나?

노파 아녀요. 즈그 아버지가 갑자기 시상 떠나는 바람에, 고등학교도 못보냈어라. 나까지 몸이 시원찮으니까, 우리집 농사를 시방 가가 다 짓는다, 이 놈이, 어제 집에도 안 들어오고...

만섭 에이, 난 또 무슨 큰일이라도 났다고. 어디서 밤새 친구랑 대포라도 한잔 했나보구만, 뭘 그렇게 다 큰 아드님을 걱정을 하고 그러신데요.

노파 (답답) 우리 막둥이 즈그 아버지 닮아서 술은 입에도 못 대라. 게다가, 군인들이 젊은 사람만 보든 눈이 헤까닥 뒤집혀갖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막 두들겨 패볼고 칼도 놓고 그런다 안하요.

만섭 에이, 할머니. 누가 그래요? (말도 안된다) 군인이 무슨 건달도 아니고.. 저도 육군병장 만기제대 했는데, 군인들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노파 죄다 그라든디요. 엇그제부터 군인들이 몰려와갖고, 젊은 사람들 씨를 말려 뺏다고.

만섭 그거야, 대학생들이 자꾸 공부는 안하고 데모만 하니까, 데모하는 대학생들 괜히 겁주려고 그러는거니까요. 아드님 걱정, 너무 하지 마세요.

노파 그라겠지라? 참말로 우리 막둥이한테 아무 일 없어야 하느디... (한숨) 근디, 그라든 야가 대체 어딜 갔을까요.

불안함에 어쩔 줄 몰라하는 노파를 안쓰럽게 쳐다보는 만섭.

33. 병원 주차장 / 낮

주차장에 들어서는 만섭의 택시.

주차장에서는 광주 택시기사 황태술(30대 후반)과 최기자(40대 초반)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무심코 지나치던 만섭의 시선에, 최기자가 메고 있는 사진기가 눈에 들어온다.

피터를 떠올리며 만섭은 찡찡한 표정이 되는데,

황기사 나가, 댁같은 인간들은 따따블을 준다해도 안 태워분다 이거여!

최기자 기사양반, 시방 바빠서 그런다 안 하요. 거 좀 태워주소.

황기사 하이구마, 바쁘긴 무가 바쁘다고. 시방 젤로 한가한 사람들이 댁같은 기사들 아니여. 신문에 기사 한줄을 안 쓰면서, 바쁘기는.

최기자가 다른 기사들을 쳐다보지만, 택시 기사들은 하나같이 최기자를 외면한다.

황기사 아, 우린 운행 접었당개! 기사들이 기사를 안 쓰는다, 기사들도 기자는 안 태워분다 이거여!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만섭.

만섭 별건 대낮에 차를 저렇게 놀리고, 광주 택시는 다들 먹고 살만한가보네요.

최기자가 급히 만섭의 택시로 뛰어오자,

만섭 (안간다고 손짓하며) 이거 서울택시예요. 광주 택시 타세요.

그때, 요란한 클락손 소리와 함께 택시 한 대가 병원 주차장으로 돌진해 들어오더니,
끼이익- 소리를 내며 멈춰선다. 앞 유리창은 산산조각 나 있고, 범퍼마저 너덜거리는 택시.
만섭과 노파가 무슨 일인가 싶어 택시를 쳐다보는데,
주차장의 택시 기사들, 그리고 최기자까지 택시로 우르르 몰려가더니,
뒷좌석에서 피가 흥건한 교복차림의 부상자를 끌어내 병원으로 업고 뛴다.

택시기사 아직 고등학생인거 같은디...

충격을 받은 노파가 만섭의 팔을 붙잡는다. 만섭 역시 놀라기는 마찬가지다.

노파 (숨쉬기도 어렵다) 기사양반, 우리 막둥이 좀 찾아주소. 지발 우리 막둥이 좀...

노파를 다독이는 만섭의 표정도 안쓰러움과 불안함이 뒤섞여 복잡하다.

34. 병원 / 낮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분주한 의료진들,

만섭 (지나가던 간호사를 붙잡고) 저기요... 흉용표라고, 여기 있습니까?

간호사 (바쁘다, 차트를 훑어보더니) 흉용표, 흉용표... 응급실로 가보세요.

노파 (응급실이라는 단어에 화들짝) 용표야!

만섭이 노파와 함께 응급실 안으로 들어선다.

응급실 한쪽에선 의료진들이 방금 전에 실려 온 교복차림의 학생을 치료하느라 분주하다.
그때, 노파가 머리에 붕대를 감은 환자를 발견한다.

노파 용표야, 용표야...

절룩거리며 달려가 보면, 피멍이 든 눈, 터진 입술, 퉁퉁 부은 얼굴... 하지만 용표가 아니다.
만섭이 휘청거리는 노파를 황급히 부축하는데,

용표 엄니!!!! 시방, 여그서 뭐하시는겨?

머리가 흰하게 벗겨진 정수리에 반창고를 붙인 용표가 다가온다. (트럭 위의 붕대남이다.)
노파의 막둥이, 용표는 벗겨진 머리 탓인지, 만섭보다도 너댓살은 더 많아 보인다.

노파 아이고...막둥아... (아들의 가슴을 치며) 이놈아! 나는 니가 어찌 되분줄 알고... (정수리의 반창고를 만지며) 니 참말로 괜찮은거제, 글제?

용표 아따, 암시랑토 앓구만. 세바늘 꼬맨겨... (노파의 맨발을 쳐다보고는) 엄니는! 신발도 안신고 여까지는 어뜨케 온겨?

노파 여그 기사님 아니었으믄... (만섭에게 허리 숙여)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용표에게) 막둥아, 너 돈 가진거 있제?

만섭 (혹시나 하는 눈빛으로 용표를 쳐다본다)

용표 나도 돈 없시라. 엄니는! 뭘 일났다고, 돈도 없음시롱 택시까지 타분다요.

만섭 (실망스럽지만) 됐어요, 할머니. 제가 그냥 태워드린건데요, 뭘. 그거보세요, 제가 별 일 없을 거라고... (뭔가 이상하다)

만섭을 뵈히 쳐다보는 용표. 만섭도 용표의 얼굴이 낮익다.

용표 (긴가민가) 아까, 그 서울 택시... 맞구만!

만섭 (당황한다)

노파 용표 니가, 이 기사님을 아냐?

만섭, 그제서야 용표가 트럭 위의 붕대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당황하는데,
재식과 함께 허겁지겁 응급실 안으로 뛰어들어 오는 피터.

피터 미스타킴!!!! 내가 당신 택시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만섭 (당황, 혼잣말) 에이씨... 저 인간은 왜 여겼어?

피터 (화났다, 속사포, 영) 시간도 얼마 없는데, 내가 당신 택시 찾는다고, 여태 촬영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 빨리 내 장비부터 내놔라!

피터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 영문을 몰라 눈만 껌뻑거리는데,

노파 이 양반은 누군디, 기사님한테 역정을 내분다냐.

재식 이 기사 아저씨가 여그 기사님 비싼 물건을 갖고 튀어 부렸지라.

만섭 (발끈) 지금 뭘 소리를 하는거야?! 사람을 뭇로 보고... 물건을 갖고 튀긴, 내가 무슨 물건을 갖고 튀었다고?!

35. 주차장 / 낮

만섭의 택시 뒷좌석에, 피터의 장비 가방이 보인다.

피터가 만섭을 노려보면, 만섭이 허둥지둥 가방을 꺼내 피터에게 건넨다.

만섭 (당황) 이게 왜 여겼냐... (억울) 아이 돈트 노우, 리얼리. (사람들에게) 난 진짜 몰랐다니까, 오해라고!!!

이미 만섭의 택시 주변으로 가득 모여든 사람들. 차가운 시선으로 만섭을 쳐다본다.

만섭 (오히려 큰소리) 아니, 따라 오라 그래놓고는 그렇게 빨리 가버리면... 내가 광주 길을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찾아다녔다고!!!

용표 아저씨!!! 그건 아니지라. 아저씨가 유턴해갖고 가는걸 본 사람이 있다.

기사1 에이, 아무렴, 택시기사가 택시비도 안 받았는디, 손님을 버려볼고 갔겠는가.

장비를 살피던 피터가 만섭에게 다가온다.

피터 (지갑에서 5만원을 꺼내 내밀며) 나머지 택시비 절반이다. 난 장비 찾았으니까 그걸로 됐다.

만섭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눈만 깜빡인다)

기사1 (눈이 휘둥그레) 뭐여? 여그까지 택시비를 5만원이나 부른겨?

재식 그게 아니라, 10만원 받기로 하고, 5만원은 벌써 받았나 본디요.

기사1 (만섭을 쳐다보며) 하이고마, 손님이 택시비를 미리 줬을리는 없을 것인데, 그럼, 참말로 토껴볼 생각으로 돈까지 미리 받은겨?

피터 (5만원을 흔들며, 영) 빨리 받아라. 나 촬영하러 가야 한다.

기사2 (손사레) 돈 주지 마소. 둠병 망신은 미꾸라지가 시킨다고. 이참에 이런 택시는 버릇을 확 고쳐나야제. (만섭에게) 비켜보소. 그 차 번호 좀 봅시다.

만섭 (버럭) 아, 진짜!!!! 내가 뭘 어쨌다고!!! 난 그냥 길을 잃었다니까!!!

황기사 여보쇼, 서울기사 양반! 그러다 별받소. 택시가 그라믄 안되불고, 사람이 그라믄 안되불지. 자식 안 키운다요? 자식한테 부끄럽지도 않소?

만섭 (황기사를 노려보며) 진짜, 말이면 다 말인줄 아나? 에이씨! (5만원을 꺼내 피터에게 찔러주며) 이럼 나 받은 거 하나도 없는거요. 택시비, 이따 서울! 됐지?

피터가 뭐라고 대꾸하기도 전에, 먼저 차에 타버리는 만섭.

시동을 거는데, 텅텅텅, 소리가 나더니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만섭이 당황한다.

주차장에 있던 피터와 재식, 노파, 용표, 황기사, 택시 기사들, 일제히 만섭을 쳐다보는데, 몇 번의 시도 만에 시동이 걸린다.

만섭 (아무 일 아니라는 듯) 안 갈꺼요?

36. 도로 / 낮

운전하는 만섭의 얼굴에 불평, 불만이 가득한데,
뒷좌석에서는 재식이 피터에게 계속 광주의 상황을 영어로 설명하고 있다.

만섭 (까칠) 이봐, 학생! 학생은 계속 내 차 타고 다닐건가?
재식 여그 기자님이 통역 해달라고 하는데요.
만섭 (까칠) 학생 부모님은 학생, 이려고 다니는거 아서?
재식 (황당) 아따, 아저씨는 왜 불뚱이 나한테 튼다요?
만섭 (뜨끔하지만) 불뚱은 무슨 불뚱?! 아까 못봤어? 학생 어머니도 집에서 얼마
나 걱정하고 계시겠어?
재식 ...
만섭 서울이나, 광주나... 왜들 대학만 가면, 눈이 뒤집혀갔고 데모질인지. 그 비
싼 등록금까지 내고, 데모하려고 대학갔어? 공부하려고 간거 아니야. 그러면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재식 저는 공부할라고 대학 간거 아닌데요?
만섭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싶어 쳐다보면)
재식 (해맑게) 대학가요제 나갈라구요.
만섭 쫓쫓... (한심, 또 한심) 그럼 차라리 노래 연습을 하던가.
재식 아저씨 같으면 집에 강도가 들었는디, 시방 노래 연습이나 하고 있겠소요?
만섭 (버럭) 강도는 무슨. 군인들이 학생 돈을 뺏았어, 쌀을 뺏았어?
재식 몽둥이에 총까지 들고 쳐들어와서, 사람을 때불고, 조사뿔고, 그게 강도가
아니면 뭐라요?
만섭 그거야, 대학생들이 자꾸 데모를 하니까 그러는거 아니야.
재식 아까 병원서 못 보셨소. 교복입은 아가 칼에 맞아갔고 실려온그. 아저씨 눈
엔 가가 대학생으로 보이오, 거그 누워있는 사람 중에 대학생이 몇이나 될
것 같으요.
만섭 ...
재식 나가 그룹사운드 한다고 바빠갔고, 원래 데모는 근처에도 안 갔어라. 근디
내 친구들이 다쳐불고 하는디... 그냥 보고만 있어라? 데모를 하니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시방, 저것들이 데모를 안할 수가 없게 만든당게요. 아저씨는
암것도 모름시롱, 그런 말씀 하덜 마쇼잉.
만섭 (괜히) 내가 모르긴 뭘 몰라? 택시기사만큼 세상 돌아가는거에 빠삭한 사람
이 있는 줄 알아?
재식 됐어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까칠) 이 짹서 우회전이나 하쇼잉.
피터 (영)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냐? 미스타킴을 신뢰할 수 없다.
재식 (영) 맞다. 여기서 우회전해서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그때, 주변을 살피더니 그대로 직진해버리는 만섭.

피터 (버럭, 영) 미스타킴! 지금 어디 가는거냐?

재식 (다급) 아저씨! 우회전해야 된당게, 으테로 간다요?
만섭 (같이 버럭) 가스! 가스!!! 차에 기름 넣으려 간다!

그제서야 피터와 재식의 눈에 들어오는 주유소 간판. 민망하다.

37. 주유소 / 낮

만섭의 택시가 가스주입구 앞에 멈춰서자, 주유소 직원이 다가온다.

만섭 만땅 같은 삼천원이요! (투덜투덜) 아까부터 사람을 뭇로 보고 말이야. 내가 그런 사람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해.

피터와 재식. 탄청을 부린다.

계속 들어가는 가스. 만섭이 계기판을 쳐다보는데, 이미 5천원을 넘었다.

만섭 (버럭) 아니, 당신, 지금 뭐 하는거야? 그거 안 빼?! 이 사람이 진짜 큰 일 날 사람이네!

직원 (놀라서 황급히 주유호스를 뺀다) 뭐때시 그런데요?

만섭 3천원만 넣으라니까! 3천원 몰라? 3천원!

직원 (황당하다)

만섭 내가 이런다고 돈 더 낼 줄 알아? 아무리 내가 여기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장사를 어떻게 이딴 식으로 하고 말이야... (3천원을 건네며) 몰라. 난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3천원만 줄거야.

직원 (기가 막히다) 아따.. 기사양반. 씹질하고는. 어차피 공짜기름, 좀 더 주겠다는디, 뭇 성질을 그리 부려쨌단요

만섭 (무슨 소린가 싶어 쳐다보면)

직원 아조, 만땅 채웠으면 맥살 잡힐 뻔 했구마잉.

만섭 (당황해서 재식을 쳐다보면)

재식 (탄청) 광주 사람들이 다 누구 같은 줄 아시는갑소.

진짜 그냥 가도 되는건가 싶어, 어안이 병병한 얼굴로 주유소 직원과 재식을 쳐다보는 만섭.

38. 만섭의 택시 안 / 낮

만섭 미리 애길 해줬어야지! 공짜줄 알았으면 만땅 넣었을거 아냐.

재식 이따 서울가시기 전에, 만땅 채워가쇼잉.

만섭 당연하지. 서울까지 기름값만 해도 얼마데... (그제서야) 근데 왜 공짜데?

재식 요즘 택시 아저씨들이 허벌나게 애 쓰신당게요. 잡혀간 분도 있다하고.

만섭 (긴장) 택시 기사가 왜?

재식 다친 사람 태웠다가요.

만섭 (피터와 눈이 마주친다) 택시기사가 뭇 잘못을 했다고?! 택시가 그럼 손님

을 골라 태우나? 손님이 타면, 그냥 가는거지.

재식 아까부터 나가 한 말이 그 말 아녀라. 우리가 시방 잘못을 해갔고 요로코
롬 당하는 것이 아니랑게요.

만섭 ...

재식 그니까 시방, 광주 사람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갖고 쳐들어온 강도를 내쫓을
라고 이라는 것이지라.

‘광주 시민 함께 합시다’, ‘계엄군을 몰아내자’ 등의 담벼락에 적힌 구호들을 쳐다보는 만섭의 머릿속이 복잡해지는데, 그 위로 싸이렌 소리가 울린다.

39. 군 연병장 - 도로 / 낮

도로를 빠르게 질주하는 군용트럭들. 짐칸마다 완전무장한 공수부대원들이 가득하다.
대열 선두의 군용지프에는 권중령이 앉아 있다.
사이드 미러로 뒤따라오는 트럭들을 주시하는 권중령의 눈빛이 매섭다.

40. 골목 / 해질녘

만섭의 택시가 골목 깊숙한 곳에 멈춰서면, 장비를 챙겨 차에서 내리는 피터와 재식.
만섭이 자동차의 커버를 덮는다.

재식 (툭툭거린다) 아따, 여그선 10분도 더 걸어야 되는데.

만섭 차에 기스라도 나면, 학생이 수리비 줄거야?

피터와 재식을 따라가면서도, 걱정스레 택시를 돌아보는 만섭.
그 위로, 거대한 함성소리가 울린다.

41. 광주 YMCA 앞 / 해질녘

교복차림의 어린 학생부터, 두루마기의 노인들까지. 남녀노소,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
만섭은 전혀 예상치 못한 규모의 인파에 입을 다물지 못하는데,

재식 으싸쓰까. (핀잔) 아저씨가 장비들고 토껴부는 바람에, 아저씨 찾는다고 늦었
당게라.

만섭이 피터를 쳐다보면,
카메라를 든 피터, 발 디딜 틈도 없이 빼곡하게 들어선 사람들 때문에 촬영이 쉽지 않다.

만섭 (꽤히 큰소리) 뭐 그냥, 대충, (카메라를 든 피터 흉내) 이렇게, 이렇게 찍
으면 되지...

보고 있던 재식이 안되겠는지, 사람들 사이를 파고 들면서,

재식 **좀 비켜주쇼잉! 뉴스요! 뉴스!!!**

그 소리에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

카메라를 든 외국인 피터를 신기한 듯 쳐다보며, 길을 열어준다.

재식 **아따, 우리 광주 소식을 알릴라고, 독일기자분이 서울서 여그까지 택시타고
오셨응게, 좀 비켜들주쇼잉!**

피터와 만섭, 재식을 향해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

만섭이 사람들의 환대에 민망해하면서도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피터의 뒤를 따라가는데,
촬영을 시작하던 피터, 양쪽 어깨의 장비가 걸리적거리자, 한쪽의 장비를 무심코 만섭에게 내
민다. 만섭이 장비를 받으려고 하는 순간, 아차싶은 얼굴로 만섭을 쳐다보더니, 장비를 내민
손을 그대로 재식에게로 가져간다.

피터 **(영) 부탁 좀 하자.**

재식 **(만섭을 힐끔) 오케이!**

뻔뻔해진 손을 거둬, 괜히 머리를 쓸어 넘기는 만섭.

만섭 일행에게 길을 터준 사람들, 피터가 촬영을 시작하자 신기하게 쳐다보는데,
만섭의 눈에도 촬영하는 피터와 그 옆에 선 재식이 좀 멋있어 보인다.

만섭 **(피터를 쳐다보며) 싸가지없는 놈!**

그때, 갑자기 팡! 팡! 팡! 최루탄이 터지기 시작한다.

시민들 맞은 편에 도열해 있던 페퍼포그 차들이 일제히 최루탄을 쏘아내자,
그와 동시에 공수부대원들이 진압봉을 휘두르며 시민들을 향해 돌진해오기 시작한다.

흔비백산 도망치는 시민들.

만섭과 피터 주변의 시민들도 뛰기 시작한다.

사방에서 우르르 쏟아지는 사람들에 자꾸만 떠밀리던 피터, 갑자기 방향을 틀어 사람들을 밀
치며 도로변에 위치한 건물로 향한다.

만섭은 의아한 얼굴로 피터를 쳐다보면서도, 사람들을 밀치며 피터를 쫓아간다.

42. 광주 YMCA 옥상 / 해질녘

만섭 일행이 건물 옥상에 들어서면, 옥상에는 이미 최기자가 난간에 붙어 사진을 찍고 있다.
황급히 촬영을 시작하는 피터.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옥상까지 전해진다. 만섭이 내려다보면,
도망치는 시민들에게 달려들어 사정없이 진압봉을 휘두르는 공수부대원들.
마치 사냥이라도 하는 듯, 시민들에게 맹렬히 달려든다.
곳곳에서 들리는 비명소리.
하나둘, 쓰러진 시민들. 공수부대원에 의해 머리채를 잡힌 채 질질 끌려간다.

그때, 끌려가던 학생 하나가 공수부대원을 뿌리치고 도망치기 시작한다.
학생을 쫓는 공수부대원.
도망치는 학생을 향해 뒤에서 진압봉을 내리치고,
휘청, 학생은 그대로 고꾸라진다. 학생을 향해 가해지는 군함발.
중년 사내 하나가 도망치다 말고, 공수부대원에게 달려든다.
하지만 공수부대원의 진압봉에 중년 사내도 맥없이 쓰러지고 만다.
중년 사내를 향해 진압봉을 휘두르는 공수부대원.
중년 사내의 셔츠에 시뻘건 피가 베어나온다.
공수부대원의 폭행은 그칠 줄을 모른다.

충격을 받은 만섭이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옥상 난간에서 뒷걸음질친다.
피터 역시 충격을 받은 표정이다.
재식과 눈이 마주치는 만섭. 재식은 안타까움과 울분으로 눈시울이 붉어져있다.

만섭	(놀라) 왜.. ?
재식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만섭	그래도 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데모 하는게 문제면, 그냥 잡아가면 되는 거지...
재식	나야말로 묻고 싶어라. 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는거냐고. 우리도 사람인데, 우리한테 대체 왜 이러는거냐고.
만섭	...

만섭이 옥상 아래를 안타깝게 지켜보는데,
촬영을 하던 피터가 장비를 챙기기 시작한다.

피터	(재식에게, 영) 안되겠다. 내려가서 찍어야겠다.
만섭	(화들짝, 피터를 붙잡고) 어딜? 저 밑에? 당신, 미쳤어? 노노노노!!!! (다급) 스테이, 히어... (아래를 가리키며) 댄저댄저!... 히어 셰이프, 히어 카메라.
피터	(만섭의 말을 무시하고 장비를 든다, 영) 미스타킴은 여기 있고 싶으면, 여기 있어라. 우리끼리 내려가겠다.
만섭	그건 안되지! 그러다가 내가 당신 잃어버리면, 택시비는 누구한테 받으라고?!

만섭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평!평!평! 다시금 최루탄이 쏟아진다. 움찔하는 만섭.
피터가 만섭을 뿌리치고 내려가고, 재식도 피터를 뒤따른다.
그때, 거둡 셔터를 누르던 최기자도 만섭의 앞을 가로질러 계단으로 향한다.
혼자 남은 만섭이 아래를 내려다보면, 공수부대원들의 진압이 계속되고 있다.
갈팡질팡 하는 만섭.
내려가자니 공수부대가 무섭고, 안내려가자니 십만원을 못 받을까봐 무섭다.

만섭 (안달) 아이씨... 저길 왜 내려가, 저길!!!

43. 광주 YMCA 인근 거리 / 해질녘

뒤늦게 거리를 내려온 만섭이 두리번거리며 피터를 찾는데,
만섭 쪽으로 우르르 쏟아지는 시민들. 만섭도 열거에 같이 뛴다.
만섭과 시민들을 향해 달려드는 공수부대원들.

시민들과 뒤섞여 뒤편으로 도망친 만섭.
뒤쪽으로 몸을 피한 시민들 사이에서 촬영 중인 피터를 발견한다.
불안함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끼는 만섭. 피터에게 다가가는데,

시민1 우짜쓰까!

만섭이 돌아보면,
두루마기 차림의 노인이 도망치다가 넘어져버렸다.
넘어진 노인을 향해 달려오는 공수부대원.
안타까워 하면서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시민들.

공수부대원이 노인을 향해 진압봉을 휘두르려 하는데,
순간, 공수부대원을 향해 날아드는 깨진 보도블럭.
대학생이 던진 보도블럭에 정통으로 맞고, 휘청한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시민들이 보도블럭을 깨뜨려 공수부대를 향해 던지기 시작한다.
뒤로 주춤하는 공수부대원들.
몇몇 시민들이 깨진 보도블럭을 던지며 달려나가, 노인을 부축해 온다.

시민들의 투석은 더욱 거세지고,
공수부대원들이 시민들을 향해 달려들기 시작한다.

만섭 (피터에게) 댄저! 댄저!!!!

들은 척도 안하고, 촬영에만 집중하는 피터.

공수부대원들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시민들도 서서히 뒤로 물러선다.

만섭 (피터를 잡아끌며) 가자고!!! 여기 더 있으면 큰일 난다니까!!!

촬영중인 피터를 힘으로 잡아끄는 만섭.

그때, 도망치던 시위대가 피터와 부딪힌다. 만섭이 잡아끌던 힘 때문에, 휘청하며 카메라를 떨어뜨리는 피터. 만섭, 재식, 피터, 모두 놀란다.

피터가 급히 카메라를 주워 살피는데, 렌즈에 선명하게 금이 갔다.

피터 (버럭, 독) 그러니까! 가만 두라고 얘기했잖아!!!!

만섭 (바짝 졸았다. 눈치) 고장났어...?

렌즈를 살피는 피터. 만섭과 재식은 피터의 눈치만 살피는데,

(공수) 저 새끼들 뭐야?! 야!!! 저 새끼 잡아!!!!

만섭과 재식이 동시에 쳐다보면, 공수부대원들이 피터와 만섭을 향해 뛰어오고 있다. 그 모습을 촬영하겠다고 카메라를 드는 피터.

만섭 (피터의 손을 낚아채며)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

재식 (뒤쪽 골목길을 가리키며) 아저씨! 이쪽이요!!!!

재식이 가리키는 골목으로 뛰어들어가는 만섭 일행.

만섭이 뒤를 돌아보면,

공수부대원들이 보도블럭을 던지던 시위대와 뒤엉키는 모습이 보인다.

44. 인근 골목 / 해질녘

만섭 일행을 쫓던 공수부대원들,

골목 주변을 살살이 뒤흔들지만, 어디에도 만섭 일행은 보이지 않는다.

45. 골목길 / 밤

택시로 향하는 만섭 일행.

만섭, 불안한지 연신 뒤를 돌아보는데, 피터와 눈이 마주친다.

만섭 (큰소리) 거봐, 내가 뭐랬어? 댕저라고.

피터 (만섭을 노려보면)

만섭 (깨갱) 아니, 내가 그런 것도 아니고, (괜히) 나쁜 놈들! 왜 가만있는 사람들을 두들겨 패고 말이야!!!

머쓱한 얼굴로 택시의 자동차 커버를 벗기는 만섭.

피터 (재식에게, 영) 오늘 하루 고맙웠다. 오늘 찍은게 뉴스로 나가고 나면, 다른 외신기자들도 광주로 몰려올 거고, 한국 정부도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게 될 거다.

재식 고맙긴요... 제가 고맙지라. (고개 숙여) 참말로 고맙습니다.

만섭 (투덜) 고맙긴 뭐가 고마워. 기자가 월급받고 하는 일이 뉴스 찍는 거지 뭘.

재식 (만섭을 귀엽다는 듯, 쳐다본다)

만섭 왜? 내 말이 틀려?

재식 아저씨, 조심하쇼잉. 군인들이 어뜨케 나올지 모른당게.

만섭 누가 할 소릴!!! 학생이나 괜히, 아까처럼 앞에 나선다고 그러지 말고. 어?

재식 (미소) 나가 아저씨 땀, 다 아니께. 걱정마쇼잉.

만섭 알긴 뭘 알아? 씨바, 나도 지금 내 맘을 모르겠구만. (차에 타려다 말고) 학생은 이름이 뭐야?

재식 재식이요. 구재식.

만섭 내가 나중에 대학가요제 볼테니까. 내 말 명심하고. (피터에게) 얼른 출발 합시다. 통금전에 서울에 도착하려면. 레쓰고 서울!

만섭이 시동을 거는데, 덜덜덜덜 소리만 날 뿐.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만섭 넌 오늘 왜 자꾸 이러냐...

긴장하는 만섭과 피터. 만섭의 택시를 지켜보던 재식도 긴장하는데,
다행히 몇 번의 시도 끝에 시동이 걸린다. 재식을 향해 손을 흔들며 출발하는 택시.
하지만, 덜덜덜덜, 엔진 떨리는 소리가 다시 나더니, 얼마 가지 못해 시동이 꺼져버린다.
이젠 아예 시동이 걸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만섭이 다급히 차에서 내려 보닛을 열어보지만,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는다.

재식 (다가와) 고장이라요?
피터 (차에서 내리며, 영) 무슨 일이냐?

그때, 골목 너머에서 차소리가 들려온다. 긴장하는 세 사람. 점점 가까워지는 차소리.
만섭이 황급히 재식, 피터와 함께 몸을 숨기려 하는데,
골목 끝에서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세 사람을 비춘다.
어쩔 줄 몰라하는 세 사람에게 빠르게 다가오는 헤드라이트 불빛.

황기사 서울 택시, 맞지라? 아까 그...

황기사다. 안도감에 다리가 풀리는 만섭.

46. 골목길 / 밤

만섭의 택시가 황기사의 택시에 줄로 연결된 채, 골목을 빠져나간다.
택시 안의 만섭과 피터, 재식. 세 사람 모두 말이 없다.

재식 (눈치를 살피며) 금방 고치겠죠.

룸미러에 걸린 가족사진을 바라보는 만섭, 머릿속이 복잡하다.

재식 (부러 밝게) 오매! 아저씨 딸내미요? 디게 예쁘게 생겼구만?!

만섭 (쳐다보면)

재식 (다시 봤다는 듯) 오오~ 아저씨 능력있소잉. 사모님이 겁나게 미인이사구마잉. 다행히 아저씨 안 닳고, 엄마 닳아갖고 이쁘구마이랑!

무슨 얘기하나 싶어, 사진을 들여다보는 피터.

재식이 피터에게 사진을 보여주려고, 룸미러에 걸린 사진을 잡아 당기는데,

만섭 (버럭) 지금 뭐하는거야?

재식 (움찔, 사진을 놓는다) 그게 그냥... 죄, 죄송해요.

피터 ...

택시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47. 계엄군 사령부 / 밤

권중령의 보고에, 심각한 얼굴로 담배를 피우는 사령관.

답답한지 반 이상 남은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끈다.

권중령 외신기자 신고도 안하고, 공항에서도 선교사라고 했답니다. 아예 걱정하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사령관이 갑자기 일어나서, 권중령의 복부를 여러번 때린다. 휘청하는 권중령.

사령관 잘한다, 잘한다 했더니, 정신 못차리지? 그런 새끼가 광주까지 기어들어오도록, 니들은 뭐하고 있었어?

권중령 (자세잡고) 죄송합니다.

사령관 그깟 서양기자 한 놈 때문에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아! 알아들어?

권중령 네!

48. 카센터 / 밤

셔터를 내린 카센터.

카센터 사장이 만섭의 차 상태를 이것저것 점검한다.

카센터 (표정이 좋지 않다) 이걸 어쩐다... 미송 내린지 오래 되셨네. 쉼모타가 나갔구만.

황기사 난 또, 뭇이 크게 망가졌다고. 그거야 같면 되잖애?

카센터 누가 그걸 몰라? 시방 부품이 하나도 없으니게 하는 소리제.

만섭 (울상)

황기사 뭘 소리여, 어째 카센터에 부품이 없어. 장사 안흐냐?

카센터 워매... 이 난리통에 물건이 안 들어오는다, 어찌요? 것다가, 요즘 박살난 차가 어디 한두 대가니? (진열장을 가리키며) 있는거 다 털어쓰불고, 남는게 없어라.

만섭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카센터 서울까지는 어림도 없고, 어떻게 잘 해보면, 한 30분은 달릴 수 있을랑가.

만섭 얼마나 걸립니까? 오늘 통금 전에 서울에 도착해야 하는데...

카센터 오늘이요? 아따, 오늘은 죽었다 깨나도 안되지라. 못 잡아도 2시간은 걸릴 것인디. 통금도 얼마 안 남았고.

시계를 쳐다보는데, 8시가 넘었다. 재식을 쳐다보는 만섭.

재식 여는 엇그제부터 통금이 9시여라.

만섭 (심란하다) 일단, 전화 한 통만 쏘시다.

카센터 (황당) 전화요?

만섭 일단 집에 전화부터 하고요. 전화비는 따로 드릴테니까.

카센터 시외전화, 진작에 끊겼는디, 모르셨소잉?

만섭 (충격, 당황)

황기사 그놈들이 전화까지 끊어버렸다 안하요. 아조 광주 사람들을 말라 죽여볼라고.

만섭 (큰일났다) 전화 꼭 해야 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황기사 (녁살) 너무 안달하지 마쇼잉. 뭐 남자가 바깥 일을 하다보믄, 가끔 외박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거 아니요.

만섭 집에 딸이 혼자 있어요. 아직 열11살 밖에 안된 애라....

황기사 워매! 애 엄마는 어디가고?

카센터 (황기사에게 그만 물어보라고 눈치를 주며) 어찌쓰까나... 어린 것이 혼자...

밤새 혼자 있을 딸 걱정엔 맨 얼굴을 쓸어내리며 한숨을 내쉬는 만섭. 걱정이 한가득이다.

그런 만섭을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들. 하지만 도울 방법이 없다.

카센터 한쪽에서 만섭의 눈치만 살피던 피터, 점점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챈다.

피터 (지갑을 꺼내며, 영) 미스타킴! 수리비는 내가 줄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만섭 (피터의 먹살을 잡는다) 야 이 개새끼야,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씨팔, 넌 다 알고 온거지? 여기 이런거, 다 알면서도 내 택시 타고 온거지?
 피터 (화나서 먹살을 뿌리친다, 영) 차가 고장난게 내 탓이냐? 왜 나한테 화를 내는거냐?

피터를 노려보는 만섭. 거칠게 셔터를 올리고는, 밖으로 나가버린다.

49. 계엄군 사령부 작전실 / 밤

작전실 한쪽에서 공수부대원들이 서류 및 무전 업무를 보고 있다.

무전병 독일기자를 찾고 있다. 서울 택시를 타고 이동중이다. 위험인물이니 각 초소는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

종군기자 활동이 빼곡하게 적힌, 피터의 경력사항을 확인중인 권중령.
 그때, 장대위가 다가와 권중령에게 경례를 붙인다.

권중령 (피터의 서류를 넘기며) 잡혀온 놈들 말로는, 서울 택시를 타고 다닌다니까.
 장대위 (피터의 서류를 확인한다)
 권중령 무슨 짓을 해도 좋다. 광주 전체를 다 뒤져서라도 반드시 찾는다.
 장대위 네.

50. 황기사의 집 앞 / 밤

만섭 일행을 태운 황기사의 택시가 집 앞에 멈춰서면,
 대문을 열고 뛰어나오는 황기사의 아내와 어린 아들(6).

황기사처 (안도, 원망) 아따, 뭘때미 이렇게 늦었대요?
 황기사 (아들을 안으며) 오매, 우리 아들, 여태 안자고 아빠 기다렸어?!

만섭은 황기사의 아들을 보고는 혼자 있을 딸 걱정애 다시금 얼굴이 어두워지는데,
 황기사의 아들은 피터의 등장에 놀라, 아빠 뒤로 숨는다.

피터 (어색한 손인사) 하이!
 아들 (울음을 터뜨린다) 엄마....
 황기사 (아들을 달래며) 응. 괜찮여, 괜찮여, 이 아저씨 나쁜 사람 아녀... 뚝!
 황기사처 (누구냐는 입모양)
 황기사 밥 있자? (만섭일행에게) 여서 이러지 말고, 후딱 들어갑시다잉.

황기사에 이끌려 집 안으로 들어가는 만섭.

51. 황기사의 집 / 밤

이것저것 푸짐하게 놓인 전형적인 전라도 밥상이다.

재식 (차려진 밥상을 보고 감탄) 와!!!!
황기사 찬이 왜 이거이 밖에 없어? 귀한 손님들이구만...
황기사처 갑자기 뭘 어떻게 한대요. 진작 연락을 좀 하든가.
황기사 전화가 안되는데, 어떻게 연락을 해야? (아차, 싶어 만섭을 쳐다본다) 주인집 아줌씨가 잘 챙기고 있을 것이니까, 녀 걱정마쇼잉. 녀 아침에 나가자마자 전화하면 될 것이니께.
만섭 네.
황기사아들 (황기사가 수저 뜨기를 기다린다) 아버지, 배고파요.
황기사 찬은 없어도 먹을만은 할 것이니께, 드쇼잉. (피터에게 밥 먹는 시늉)
피터 땡큐.

능숙한 젓가락질로 밥을 먹기 시작하는 피터 갓김치를 집는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신기하게 쳐다보는데,

재식 매울틴디... (영) 매워요 그거
피터 (영) 나 매운 거 잘 먹는다 (씹다가 매워서 호들갑, 독) 앗! 매워. 매워... 물! 물! 물!!!! (옆에 있는 국그릇을 집어 들어 마시며, 독) 뜨거! 뜨거!!!

피터가 찹찹매는 모습을 쳐다보며 웃는 사람들. 만섭도 그만 피식, 웃음을 터뜨린다.
매워서 어쩔 줄 몰라하면서도 만섭이 웃자, 피터도 만섭을 보고 웃는다.

만섭 웃기는! 녀의 나라까지 와가지고, 카메라나 깨먹고... 녀도 참 고생이다.
피터 (무슨 뜻이냐는 표정으로 만섭을 쳐다본다)
만섭 (물을 따라서 건네며) 물이나 마셔.

벌컥벌컥 물을 마시는 피터를 쳐다보며, 미소 짓는 만섭.

52. 광주 터미널 인근 도로 / 밤

끼이익- 소리와 함께 멈춰서는 택시.
사복특공조를 태운 검은 짙차 몇 대가 택시의 앞 뒤를 에워싼다.
택시의 서울 차 번호판을 확인한 공수장교, 택시기사를 차에서 끄집어 내린다.

택시기사 (겁에 질려) 왜 그러십니까?
공수장교 외신기자, 어딴여?
택시기사 (무슨 소리인가 싶어) 기자라뇨. 무슨.

공수장교 (머리채를 확 잡아채고) 오늘 서울서 기자새끼 하나 태우고 왔잖아?!!!
 택시기사 (벌벌) 아, 아닙니다... 저는 지난 주에 처갓집 왔습니다. 장모님이 편찮으셔서... (차 안을 가리키며) 지금도 약 사러 나온 겁니다.

대쉬보드 위에 올려져 있는 약봉투가 보인다.
 공수장교가 택시기사를 걷어찬다. 바닥에 쓰러지는 택시기사.
 쓰러진채 공수부대원에게 끌려가는 택시기사.

53. 황기사의 집 / 밤

밖에서 울리는 9시 통금 사이렌.

재식 아저씨, 뉴스 할 시간이다...
 황기사 뉴스는 뭐할라고? 하나같이 쓰잘데기 없는 얘기만 씨부리는구만.
 재식 혹시 아요? 오늘은 뭐라도 얘기가 좀 있을지...

황기사가 툭툭거리면서도 TV를 켜는데,

방송 계엄사령부는 광주 일원의 소요 사태가 아직 수습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재식 어매! 나온다!!!
 방송 이는 서울을 이탈한 학원 소요 주동학생 및 깡패 등 불순세력들이 대거 광주로 내려가 사실무근한 유언비어를 날조해 퍼트린데 기인한 것으로, 현재까지 민간인 1명, 군경 5명이 사망했으며, 연행된 176명은 모두 기훈방 조치되어 귀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들 엉터리 뉴스에 충격을 받는다.

만섭 (당황) 말도 안돼... 이게... 지금 뭐라고 한겁니까?
 황기사 (TV를 꺼버린다) 이런 씨벌놈들이!!!!
 황기사처 (아들을 끌어 안으며) 여보!
 황기사 오늘만서도 몇이가 죽었는데, (만섭에게) 형씨가 보기에다 우리가 불순세력 처럼 보이요? 아니면, 내가 지금 깡패라 이러요? (피터에게 따지듯) 방송에서 막 이라고 거짓말을 해도 되는거요? 응? 어디 판나라에서도 이럽니까?
 피터 (재식에게, 영) 뉴스에서 뭐라고 했길래 이러냐?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재식, 분하기는 마찬가지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흐른다.
 황기사를 달래는 재식.

재식 저런 거짓말이 얼마나 가겠어요. (피터의 카메라를 가리키며) 저기 다 증거가 있는데... 오늘 짝은게 뉴스뉴스로 나가기만 하면, 다른 외국 기자들도 다 광주로 온다 안하요. 그라문 더는 저런 거짓말을 못 해볼쥬. 게다가, 전

두환도 외국 눈치는 볼 수 밖에 없을 것이구만요.
 만섭 괜히 미안하네요. 내 차만 고장 안났어도...
 황기사 (기분이 좀 풀렸다) 뭘 말씀을 그리 한대요. 애길 들어봉께, 나가 시방 형씨
 하고 기자양반에게 잘 부탁한다고 무릎이라도 꿇어야되는 상황이구만.
 재식 (무릎 꿇는 시늉) 제가 꿇을까요. 제가. 저 진~짜 무릎 잘 꿇는데..

재식의 녀석에 웃고 마는 사람들.

만섭 무릎은 뒹고, 학생은 노래나 한 곡 해봐.
 황기사 (뜀금없이 웬 노래?)
 만섭 이 학생이 대학가요제 나간답니다. 상 받을만한지, 우리가 봐줄테니까.

쑥스러운 척하더니, 벌떡 일어나는 재식. 뻔뻔한 표정으로 사람들에게 박수를 유도한다.

재식 (울동과 함께) 나 어떡해 너 갑자기 가버리면 / 나 어떡해 너를 잃고 살아갈
 까 / 나 어떡해 나를 두고 떠나가면 / 그건 안돼 정말 안돼 가지마라 / 누
 구 몰래 다짐했던 비밀이었나 / 다정했던 네가 상냥했던 네가 / 그럴 수 있
 나 / 나 어떡해 나 어떡해 나 어떡해 나 어떡해

음치도 이런 음치가 없다. 얼굴이 시뻘개지며 고음을 내지를 때마다 거듭되는 음이탈.

만섭 (손가락으로 밥그릇을 치며) 땡! 진짜, 너 어떡하니.
 사람들 (애써 참았던 웃음이 터진다)
 재식 (진짜 모르겠다는 듯) 뭐대? 왜 땡이대요? (사람들이 계속 웃자 황기사의 아
 들에게) 니가 들어봐도 아니냐?
 황기사아들 (진지한 표정으로 끄덕끄덕) 노래 진짜 못하구마잉.
 재식 뭐어? 요 쪼매난것이!
 황기사 역시 애들은 거짓말 못 허지! 아이구, 우리 아들. 아들이 한곡 해봐봐!
 황기사아들 (부끄럽다, 절레절레)
 황기사처 너 잘하는 거 있잖애. (긋속말)
 황기사 박수!!!!
 황기사아들 (개다리춤과 함께 허쭈운 소리로) 이거다저거다 말씀 마시고, 산에 가야 곶
 을 잡고, 물에 가야 고길 잡고,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떠도...

개그콤비처럼, 재식도 황기사의 아들 옆에서 같이 따라한다. 모두들, 크게 웃는데,
 그때, 탕!탕!탕! 총소리가 들리더니, 폭발음이 이어진다.
 황기사의 아들은 울음을 터뜨리고, 모두들 놀라서 서로의 얼굴만 쳐다본다.

54. 황기사의 집 앞 / 밤

골목 너머, 검은 하늘에 불길이 치솟고 있다.

만섭 일행과 동네 사람들, 또 무슨 일인가 싶어, 불안한 얼굴로 불길을 바라보는데,
택시 한 대가 황기사 앞에 멈춰선다.

후배기사 성님, 시방 방송국 앞으로 사람들이 모인다던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는 사람들.

만섭이 피터를 쳐다보는데, 이미 피터의 손에는 카메라가 들려있다.

55. 광주 시내 / 밤

검은 하늘에 불길이 치솟는 방송국 방향으로, 검은 짙차들이 도로를 질주한다.
불길이 가까워질수록, 그 수가 점점 늘어난다.

56. MBC 방송국 앞 / 밤

불길이 치솟는 광주 MBC 방송국.

팡! 팡! 방송국의 유리창이 터지고, 100여 명의 시민들, 함성을 지른다.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피터. 눈 앞에 펼쳐진 광경에 만섭은 입을 다물지 못하는데,
시위대 앞에 선 양복차림의 40대 남자가 연설을 이어간다.

양복남 광주 시민 여러분! 우리가 깡패요?

시위대 (함성) 아니요!

양복남 글쎄, 우리가 불순세력이에요?!

시위대 (함성) 아니요!!!

양복남 나라 지키라고 세금 냈더니, 군대가 나라는 안 지키고 국민에게 총칼을 겨눠
썰고! 진실을 보도라고 세금 냈더니, 방송이 거짓말로 국민을 폭도로 만들
고! 우리가 이러라고 세금 냈소? 뭘 놈의 나라가 이따굽니까?

시위대 (함성)

양복남 그니까 인자 우리가 직접 나서갖고 진실을 되찾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시
다!!!!

어느새 시위대에 섞여 있는 황기사와 재식.

피터를 거들던 만섭은 목청이 터져라 함성을 외치는 재식을 쳐다보고는 피식, 웃는다.

만섭 (절레절레) 쫓쫓...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나같은데 벌써 득음을 했겠네.

그때, 크르르릉, 육중한 엔진소리와 함께 장갑차가 모습을 드러낸다. 당황하는 사람들.

양복남 여러분! 물러서지 맙시다! (구호 선창) 계엄군은 물러가라! 계엄군은.

순간, 장갑차의 공수부대원이 쏜 총에 어깨를 맞는 양복남. 바닥에 쓰러진다.

비명을 지르며 흩어지는 시위대.

재식과 황기사를 포함한 시위대 몇 명이 총에 맞고 쓰러진 양복남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런 시위대를 향해 돌진하는 장갑차. 황급히 몸을 피하지만,

그대로 시위대를 뚫고 지나가며 또 다른 시위대에게 돌진하는 장갑차.

깔린 시위대의 다리가 짓뭇개져 뼈가 으스러지고 너털거리는 살점이 그대로 드러난다.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다들 충격을 받고,

피터 역시 놀라서 카메라를 내려놓은 채, 그 자리에 얼어 붙어있다.

만섭 (버럭) 뭐하는거야? 카메라! 카메라!!! 빨리 찍으라고!!!!

그제서야 피터는 부랴부랴 촬영을 재개한다.

그때, 방송국 앞에 도착한 장대위와 사복특공조. 촬영중인 피터를 발견한다.

장대위의 싸인에 맞춰, 피터를 향해 사방에서 다가가는 사복특공조들.

방송국 주변에서 사진을 찍고 있던 최기자가 사복특공조의 수상한 움직임을 느낀다.

사진기를 통해, 짧은 머리의 사복특공조들이 뒷허리춤에서 진압봉을 꺼내들며 피터와 만섭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확인한다. 아무것도 모른 채 촬영 중인 피터와 만섭.

최기자 (다급) 사복이여, 사복!!! 거그 외신!!! 사복이랑게!!!!

피터와 만섭, 촬영에 집중하느라 최기자의 고함을 듣지 못한다.

부상자를 옮기던 재식이 놀라 소리지른다. .

재식 (만섭에게, 다급) 아저씨!!! 군인이에요! 빨리 도망가요!!!!

장대위 (피터와 만섭을 가리키며) 저 새끼들 잡아!!!

장대위와 사복특공조가 피터와 만섭을 향해 뛰기 시작하는데,

재식 (장대위를 붙잡고) 아저씨!!! 빨리요!!!!

만섭과 피터, 그제서야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는 사복 특공조를 피해 도망치기 시작한다.

탕! 탕! 총소리에 얼굴이 하얗게 질린 만섭과 피터, 그래도 멈춰선다.

장대위의 총에 맞은 재식이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진다.

만섭 (절규) 안돼!!!!!!

재식을 향해 달려가는 만섭.

재식 (힘없이, 가라고 손짓) 가요!!! 빨리!!!

동시에 만섭을 향해 권총을 겨누는 장대위.
얼어붙은 만섭, 꿈쩍도 하지 못한다. 거친 호흡을 내뿜는 재식과 눈이 마주친다.
순간, 재식이 마지막 힘을 다해 장대위를 들이받는다.

재식 빨리 가라고!!!!

탕! 권총은 공중을 향한다.
그 소리에 화들짝 놀란 만섭, 결국 다시 도망치기 시작한다.

57. 방송국 주변 골목 몽타주 / 밤

골목으로 들어서는 만섭. 피터는 보이지 않는다.
만섭이 뒤를 돌아보면, 만섭을 맹렬히 쫓아오는 사복특공조.
만섭이 죽을 힘을 다해 뚫다. 또 다른 골목으로 뛰어들어가는 만섭.

골목 안 사거리. 만섭도 피터도 보이지 않자, 사복특공조가 흩어져서 찾기 시작한다.

사복특공조 하나가 만섭을 발견한다.
겁에 질려 도망치던 만섭이 모퉁이를 도는데, 막다른 골목이다. 당황하는 만섭.
다시 골목을 돌아나오려 하지만 사복특공조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진다.

만섭이 있는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서는 사복특공조. 만섭이 보이지 않는다.
골목 끝에 쌓여 있는 쓰레기더미로 다가가는데,
순간, 만섭이 쓰레기더미에서 사복특공조를 향해 물건을 던지는대로 집어던지며 튀어나온다.
사복특공조를 밀치고 도망치려하는데, 붙잡히고 마는 만섭.

특공조 (진압봉을 사정없이 휘두르며) 이 빨갱이 새끼가!!!!

만섭이 저항해보지만, 진압봉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는 만섭.

만섭 (겁에 질려) 사, 살려주세요... 저, 빨갱이 아닙니다!
특공조 (만섭을 발로 걷어차며) 개새끼야, 니가 빨갱이가 아니면...
만섭 (매달리며) 저 진짜 빨갱이 아닙니다! 저 광주 사람도 아니에요. 저 서울 삽
 니다. 서울. (힘차게) 서울시 성동구 화양동 354번지 10통 8반.
특공조 (피식) 그래! 서울 택시! 외국기자 태우고 왔다는 빨갱이!
만섭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특공조 (군홧발로 만섭을 짓밟으며) 나라망신이나 시키고! 그런데도 니가 빨갱이가
 아냐?
만섭 (특공조를 들이받으며) 으아아아아악!!!!

사복특공조는 그대로 엉덩방아를 찧으며 주저 않는다.

특공조 (만섭에게 달려들며) **이 새끼가, 진짜 죽고 싶지?**

진압봉으로 만섭의 목을 조르는 특공조.

얼굴이 시뻘개지며, 숨을 헐떡이는 만섭.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

순간, 사복특공조의 뒷통수를 가격하는 누군가. 사복특공조가 만섭의 위로 쓰러진다.

만섭이 겁에 질린 얼굴로 쳐다보면, 피터가 피문은 카메라를 든 채 거친 호흡을 토해낸다.

피터 (만섭의 손을 낚아채고는, 영) **일단 여기서 나가자.**

그때, 골목 앞에서 만섭과 피터를 찾던 황기사와 마주친다. 놀라는 세 사람.

놀란 눈으로 골목 안을 바라보는 황기사의 시선에 쓰러져 있는 사복특공조가 보인다.

58. 황기사의 집 / 밤

어두운 골목길. 황기사의 집 앞에 선 만섭 일행.

황기사가 불안한 얼굴로 어두운 골목을 살피고는, 열쇠를 꺼내다가 떨어뜨린다.

바닥에 떨어진 열쇠를 줍는 황기사의 손이 떨리는데,

철커덕, 열리는 대문. 황기사의 아내다.

만섭 일행이 집 안으로 들어서면, 황기사의 아내가 주변을 살피고는 조용히 대문을 닫는다.

황기사처 (불안) **재식군은?**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휘청하는 만섭. 피터가 그런 만섭을 부축한다.

59. 조선대학교 체육관/ 밤

검은 짙차들이 체육관 앞에 급하게 멈춰 선다.

차에서 내려 체육관으로 들어가는 권중령.

체육관 안에는 시위 중 끌려온 사람들로 가득하다.

- 체육관내 사복조 사무실

사복특공조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장대위를 향해 발차기를 하는 권중령.

장대위, 바닥으로 나가 떨어진다.

부축하던 동작을 멈추고 권중령의 눈치를 살피는 사복특공조원들.

권중령 **일을 어떻게 하는거야!!!**

장대위 (일어나 자세를 잡는다)

권중령이 일어난 장대위를 향해 다시 한 번 발길질을 퍼붓는다.

장대위 (자세를 잡으며) 죄송합니다. 반드시 잡아오겠습니다.

60. 황기사의 집 / 밤

불 꺼진 거실에 누워있는 만섭.
피터는 우두커니 벽에 기대 앉아 있다.

피터 (영) 내일 날 밝는대로, 나가자.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데,

만섭 내가요. 사우디 가서 돈 좀 벌었다 아닙니까. 근데 우리 마누라가 쓰러지는 바람에 병원비로 다 날리고, 저 택시도, 마지막에 마누라가 우겨서 산거거든요. 병원에서도 이젠 가망 없다 하고, 자기는 이제 아무래도 틀렸으니까, 우리 딸 잘 키워달라고. 그래서 약이라도 좀 더 써볼 수 있었는데, 내가 못 이기는 척 했어요. 내가 그런 놈이에요. 근데, 산 사람은 살아야 하는거잖아요.

피터 ...

만섭 우리 마누라가 죽기 전날 그럽디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신혼여행 갈걸 그랬다고. 돈 아낀다고, 신혼여행도 못갔어요. 매번 내년에 가자, 내년에 가자 했는데... 우리 딸이 이제 11살인데, 콩나물 국이 기가막혀요. 내가 마누라 그렇게 보내고, 맨날 술만 마셨거든. 하루는 자다 깬더니, 애가 혼자 지 엄마가 입던 옷을 끌어안고 울고 있더라구요. 애가 얼마나 지 엄마가 보고 싶었으면... 근데 맨날 술이나 처먹고 들어오는 지 아빠한테는 응석 한 번 못 부리고... 내가 그 날로 술 딱 끊었어요. 우리 딸 한테는 이제 나 밖에 없잖아요. 나 아니면, 누가 우리 딸 대학 보내주고, 시집 보내고 하겠어요.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미안해서라도... 난 딴 생각 안하고, 우리 딸 보란 듯이 잘 키울 겁니다.

만섭의 말을 알아 들을 수 없는 피터. 하지만 만섭의 마음만은 느껴진다.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만섭.

61. 신문사 윤전실 / 밤

인쇄기에서 시험인쇄한 시쇄판이 뽑아져 나온다. 시쇄판을 확인하는 최기자와 후배기자들.
‘계엄군, 광주에서 인간사냥을 자행하다’라는 커다란 기사제목과 함께,
최기자가 찍은, 시위대를 향해 진압봉을 휘두르는 공수부대의 사진과,
불길이 치솟는 MBC 방송국 앞에서 시위대를 깔아뭉개는 장갑차 등의 사진이 실려있다.

후배기자 (뿌듯) 아따, 인자 좀 신문 같네!

최기자 (후배기자들을 둘러보며) 이게 나가면, 더 이상 기자질을 할 수 없을지 모르게. 지금이라도.

후배기자 (말 자른다) 선배만 기자여? 진즉에 얘기 끝난 거 아니요.

각오를 다지는 기자들. 최기자도 후배기자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는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긴장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는 기자들.

- 복도

윤전실로 몰려온 신문사 간부들과 직원들. 잠겨 있는 윤전실 문을 부수기 시작한다.

(소리) 야!!! 문 열어!!!! 니들, 빨리 이 문 못 열어?!

- 윤전실

기자들이 윤전실 안의 가구를 끌어다가 문을 막아보지만, 이내 문은 부서지고 만다.

신문사 간부들과 직원들 수십 명이 우르르 쏟아진다.

인쇄활판을 뺏으려는 간부들과 이를 막으려는 기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더니,

결국 바닥에 내팽개쳐지는 인쇄활판과 여러 장의 사진들.

신문사 간부가 바닥에 나뒹구는 인쇄활판을 발로 밟아 완전히 망가뜨린다.

간부 이것들이, 신문사 문 닫는 꼴 보고 싶어? (직원들에게) 당장 끌어내!

직원들, 기자들을 끌어내려 하는데, 최기자가 자기를 붙잡는 직원들을 거칠게 뿌리친다.

최기자 (부장에게 달려들며) 우리, 기자 아니요. 그러면 최소한 지금 광주서 뭘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뭐 땀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려야 하는거 아니요!

부장 (최기자를 외면한다)

간부 그런다고 뭐가 달라질거 같아?! 그 날로, 우리 신문사만 문 닫고, 여기 다 보안사로 같이 끌려가는거라고! (직원들에게) 뭐해? 빨리 끌어내라니까!

최기자와 후배기자들이 발버둥을 쳐보지만, 직원들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들려나간다.

바닥에 나뒹구는 사진이며 산산조각난 인쇄활판을 망연자실 바라보는 최기자.

62. 황기사의 집 / 새벽

누워 있던 만섭이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선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피터가 슬며시 눈을 뜨지만, 만섭을 붙잡지 못한다.

63. 골목 / 새벽

대문을 조용히 닫는 만섭.

텅 빈 골목을 뛰다시피 이동하는 만섭의 얼굴에 절망감이 가득하다.

64. 황기사의 집 / 새벽

피터가 조용히 장비를 챙기는데,
그때, 쿵광쿵광! 쿵광쿵광! 거칠게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에 방에서 나온 황기사와 불안한 시선을 나누는 피터.

황기사 (마당에 나서며, 긴장) 누구요?
후배기사 성님. 나여라.
황기사 (안도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대문을 열면) 뭘 일이여? 또 뭘 일 났는가?
후배기사 외국 기자, 아즉 여 있어라?
황기사 (쳐다보면)
후배기사 공수놈들이 밤새 그 기자랑 서울 택시 찾는다고 사방팔방 다 뒤지고 다닌
 모양이어라.

황기사의 얼굴이 사색이 된다.

65. 카센터 / 아침

만섭이 셔터 문을 두드리자, 드르륵, 올라가는 셔터.
부스스한 얼굴의 카센터 사장이 만섭의 택시 보닛을 닫는다.

카센터 순천으로 가실거죠잉?
만섭 (쳐다보면)
카센터 임시조치만 했응게, 한시간 이상은 무리여라. 순천 터미널 앞에 있는 공업사
 부터 들리셔야겠구만요. (문득) 근디 그 외국기자는 같이 안 가요?
만섭 (말 돌린다) 열맙니까?
카센터 아따, 뭘 돈을 받는다요. 그냥 가쇼잉.
만섭 (심란, 지갑을 꺼내며) 만원이면 되죠?
카센터 (왜 그러냐는 표정으로) 우리 মানুষ라가 꼼짝도 못 하게 해갖고 내가 요로코
 롬 가게에 묶여 있어도, 나도 광주 사람이구만요. 서울서 외국기자 태우고
 광주까지 어렵게 오신 분인데...
만섭 (만원을 카센터 사장의 주머니에 찔러넣는다)
카센터 (만원을 뿌리치며) 아따, 필요없당께 자꾸 왜 이런다요. 서울가는 기름값에나
 보태쇼.

끝내 만원을 주머니에 넣어주고는 택시에 타는 만섭.
카센터 사장이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그런 만섭을 쳐다본다.

66. 카센터 앞 도로 / 아침

카센터를 나선 만섭이 골목길을 따라 커브를 트는데,
갑자기 튀어나와 만섭의 택시 앞을 가로막는 누군가.

만섭이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밟고 쳐다보면, 황기사가 헉헉거리며 서 있다.

만섭 (다급히 차에서 내리면)
황기사 공수놈들이 (헉헉) 서울 택시를 찾고 있다 안하요.

만섭이 당황하는데, 황기사가 품에서 전남 번호판과 직접 그린 약도를 꺼내 만섭에게 건넨다.

황기사 길도 모르는 양반이, 가문 간다고 말이나 하고 갈 것이제.
만섭 (복잡한 표정으로 약도와 전남번호판을 들여다본다)
황기사 거그 길은 광주 사람도 잘 모르는 길이랑게. (십만원을 꺼내 만섭에게 건네며) 글고, 이걸 기자양반이 주더만요.
만섭 (절레절레, 안 받는다고 뿌리친다) 내가 이걸 어떻게 받습니까.
황기사 택시가 손님을 태웠으면, 택시비 받는건 당연하제. 암말 말고 넣어두쇼.
만섭 (힘겹다) 나 그 돈 받고는, 집에 못 갑니다.
황기사 수리비도 솔찬히 나올 것인디, (돈을 다시 거두며) 알았으니께, 조심해서 가쇼잉. 딸내미가 아빠 걱정을 얼마나 하고 있을 것이여.
만섭 (울컥)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황기사 (울컥) 형씨가 뭇이 미안하요. 나쁜 놈들은 따로 있구만. (하늘을 쳐다보며) 위매, 날씨 참 지랄맞게 좋구마이랑. 난중에 딸내미나 델고 함 오쇼잉. 우리 아들델고 같이 소풍이나 가게.
만섭 몸 조심하세요.
황기사 몸 조심하쇼잉. 산 사람은 살아야 하는 법이닝께.

67. 광주 시내 / 아침

전날의 시위 흔적이 곳곳에 가득하다.
만섭의 택시가 텅 빈 도로를 가로지르는데, 정면에 순찰중인 군용짚차가 모습을 드러낸다.
점점 가까워지는 군용짚차. 잔뜩 긴장하는 만섭.
만섭의 택시 안과 차 번호판을 쳐다보는 짚차 안의 공수부대원들. 그대로 지나쳐간다.
가슴을 쓸어내리는 만섭.

68. 비포장도로 / 낮

덜컥거리는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만섭의 택시.
황기사가 가르쳐준 길이 보이지 않자, 만섭이 차를 멈춰세우고는 약도를 펼친다.
약도에는 광주에서 순천으로 빠지는 샛길이 뿔뿔뿔, 투박하게 그려져 있다.
주변을 살피던 만섭이 그대로 후진하면, 비포장도로 한쪽으로 나무에 가려져 있다시피 한 좁은 샛길이 보인다. 다행히 군인들은 보이지 않는다.

만섭의 택시가 샛길을 빠져나간다.
심란한 얼굴로 룸미러의 가족사진을 들여다보는 만섭.

69. 국도 / 낮

눈부시게 화창한 봄날. 높은 하늘. 석가탄신일을 기념하는 색색의 연등들.
만섭의 시선에 '순천'을 알리는 이정표가 보이더니,
국도 옆으로, 밭을 일구는 늙은 농부들과 개울에서 장난치는 아이들의 모습이 펼쳐진다.
설움이 복받치는 만섭. 두 눈에 맺힌 눈물을 훔친다.

만섭 진짜, 날씨 한번 지랄맞게 좋네.

70. 계엄군 사령부 / 낮

사령부 건물 앞에 급하게 들어서는 군용짚차.
사령관이 내리자, 대기중이던 권중령이 절도있게 경례를 올린다.

사령관 아직 광주에 있는게 확실해?
권중령 네. 오늘 아침 일본행 비행기 예약이 되어 있었는데, 탑승하지 않았답니다.
사령관 (쳐다보면)
권중령 아직 광주에 있습니다. 책임지고, 오늘 안에는 반드시 잡겠습니다.

71. 순천공업사 / 낮

INS. 휴일 인파로 북적거리는 순천 시외버스 터미널. 그 앞에 위치한 공업사 전경.

공업사 직원이 만섭의 택시를 살피는데, 탄생각에 잠겨 있는 만섭.

직원 한시간 정도 걸리겠네요.

만섭의 택시 운전석에 타는 직원. 만섭은 여전히 낡아간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다.
뽕-뽕-. 직원이 울리는 경적소리에 만섭이 정신을 차리는데,

직원 한 시간은 걸린다 안하요. 좁은데 거 서 계시지 말고, 저쪽에서 오늘 부처님
 날 뭐 한다던디, 그거나 구경하다 오시믄.
만섭 전화 됩니까?

직원은 거기 전화기 안 보이냐는 표정으로, 말없이 탁자 위에 놓인 전화기를 가리킨다.

만섭이 긴장된 얼굴로 다이얼을 돌리는데, 신호가 가기 시작한다.
초조하게 딸의 목소리를 기다리는 만섭.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는다.
만섭이 다시 전화기 다이얼을 돌리는데,

(상구모) 여보세요.
 만섭 (반갑) 상구어머니. 은정이 거기 있습니까?
 (상구모) 은정아빠. 지금 어디예요?
 만섭 제가 지방에 왔다가, 차가 고장나서...
 (상구모) (말 자른다) 은정이 다쳤어요.
 만섭 (화들짝) 다쳐요? 얼마나요?
 (상구모) 소풍 가기로 했다면서. 애가 밤에 계란 삶다가 디어갔고... 어휴, 기지배가 화상 입은데다가 빨간 약 바르고 아빠 올 때까지 참았나보던데... 새벽에 내가 영영 울고 있는거 데리고 병원 갔다 왔잖아요.
 만섭 (다급) 은정이 좀 바꿔주세요.
 (상구모) 약 먹고 지금 자요. 병원에서 괜찮다고 했으니까 괜찮겠지 뭐. 근데, 은정아빠 그렇게 안 봤는데... 애 혼자 두고, 외박이나 하고 말이야.
 만섭 차 고치는대로 바로 올라갈테니까요, 상구 어머니, 은정이 좀 부탁드립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만섭. 딸이 다쳤다는 말에 마음이 찢어질 것만 같다.

72. 순천 시외버스 터미널 앞 / 낮

인파에 휩쓸려 걷는 만섭.

은정 또래의 소녀가 엄마 아빠의 손을 나란히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단란한 일가족의 모습에 눈시울을 붉히던 만섭이 시선을 돌리는데,

길 건너 늘어선 식당좌판들 사이, 신발가게 간판이 눈에 들어온다.

73. 신발가게 / 낮

운동화를 고르는 만섭.

주인 (다가오며) 따님이 몇 살이세요?

만섭 11살요.

주인 (운동화를 하나 골라 건네며) 글썽 이거 하쇼잉. 이거이 단정하니, 신발도 튼튼하게 나와갖고 요즘 엄마들이 제일 좋아해요. (사이즈를 찾으며) 어디보자, 11살이면, 200은 신어야 할텐디...

만섭 210 주세요. 지금 신는게 200인데, 작아서요.

주인 오매, 자상한거. (신발을 꺼내며) 아버지가 딸 신발 사이즈도 알고, 집에서 좋아하시곤했어요. 우리 집 남자는 지 딸 나이나 지대로 알랑가몰려.

그때, 작은 리본이 달린 어린이 애나멜 구두가 만섭의 눈에 띈다.

주인 그건 조금 비싼디...

말없이 구두를 쳐다보는 만섭.

74. 식당 좌판 / 낮

거리에 좌판을 놓은 노점식 식당.

가게 안 TV에서는 석가탄신일 기념 특집 쇼프로그램이 방송중이고,

손님 하나가 TV를 보며 혼자 반주를 하고 있다.

좌판 끝자리로 가서 앉는 만섭. 신발봉투를 고이 내려놓는데,

한 사내가 씩씩거리며 들어온다.

손님 뭐여, 오늘 수금 간다 안했나?

사내 (남은 소주를 다 따르고) 아침부터 허탕치고 온거 아니냐. 아줌씨, 여기 소주 한병 더 주소.

손님 왜? 물건값 못 주겠다하드나?

사내 광주엔 들어가도 못했구만. 군인들한테 통 사정을 해도 안된다고 해볼고.

좌판주인 (소주병을 건네며) 워매, 광주에 큰일이 났다는 소문이 있더라... 참말인갑네.

‘광주’라는 얘기에 만섭이 중년사내들을 쳐다보는데,

사내 큰일은, 나야 말로 큰일 나부렸구만. 당장 내일 돈 들어갈 때가 줄줄인다.

손님 니는 뉴스 못 봤나?

좌판주인 글씨, 군인들이 대학생만 보면, 무조건 잡아가고 때βολ고 그런다. 대학생이 벌써 여럿 죽었다 안 하요.

손님 에이, 아줌씨. 그게 아니랑게. 대학생이 데모를 해갖고, 군인들이 여럿 죽었다더라.

좌판주인 아니랑게. 광주서 누가 직접 봤다 안하요.

손님 예헤~ 이 아줌씨 순진한 것 보소. 뉴스에 나왔구만. 뉴스에.

좌판주인 (쳐다보면)

손님 그것들이 그냥 대학생이 아니라, 빨갱이들이야. 것도 보통 빨갱이들이 아니라 깡패까지 데볼고, 죄다 광주로 몰려왔다는구만. 오늘 신문짝에도 대문짝만하게 났았어야.

좌판주인 하이구야, 우짜쓰까... 난 또 그런 것도 몰르고.

옆에 놓인 신문을 황급히 가져다가 펼치는 만섭.

신문 1면에는 ‘光州 일원 데모사태 - 군경 5명 사망’이라는 제목과 함께,

광주 YMCA 앞에서 군인들을 향해 깨뜨린 보도블럭을 던지는 대학생들의 사진과,

불길이 치솟는 MBC 앞에서 환호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커다랗게 실려 있다.

신문을 잡은 만섭의 호흡이 거칠어지는데,

좌판주인이 만섭의 앞에 국수 한 그릇을 내려놓는다. 멍하니 국수 그릇을 바라만 보는 만섭.

좌판주인 아따, 아저씨. 입맛에 안 맞는 갑소잉?
만섭 (머뭇거리며) 아...아니예요.

애써 외면하듯 꾸역꾸역 국수를 먹기 시작하는 만섭.
제대로 삼키지도 않고, 마구 입으로 밀어넣는다.

좌판주인 갑나게 시장하셨소잉? 국시 쪼까 더 드릴까?

만섭 좌판주인에게 눈을 맞추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이더니 앞에 놓인 깍두기 국물까지 전부
부어 버린다. 국수 그릇을 통째로 들어 국물을 마셔버리는 만섭.
좌판주인이 이상한 듯 만섭을 쳐다본다.

만섭 (애써 감정을 누르며) ... 한 그릇 더 주세요.

75. 신문사 / 낮

신문을 들고 부장실로 뛰어가는 최기자.
부장실 문이 벌럭 열리더니, 장교 하나가 부장실에서 나온다. 최기자를 힐끔 쳐다보는 장교.
장교에게 굽신거리며 인사를 건네던 부장은 장교가 사라지고 나서야 문을 닫는다.

최기자 (신문을 보이며, 버럭) 이게 뭐다요? 이 사진, 부장이 넘겼소?
부장 (오히려 큰소리) 인마, 니들이 어제 난리친거, 보안사에까지 다 들어가가지고
 그거 수습하느라 그런 거 아녀. 어쨌든 더 이상은 문제 삼지 않기로 했응께,
 당분간 사고 치지 말고.
최기자 (말 자른다, 울분) 시방 그걸 말이라고 씨부리요?
부장 그래도 이렇게라도 기사가 나간게 어디냐. 안 그랬으면, 기사 한 줄 나갈 수
 있었을 것 같어?!

최기자 씨팔. 부장 눈엔, 이거이 시방 기사로 보이요? 이거이 공수부대 총칼이랑 뭐
 가 다르요? 시방, 이 사람들 두 번 죽인거랑께!!!
부장 (버럭) 보자보자하니까, 야 인마! 너 진짜 똥오줌 못 가릴래? 시방 나가 나
 혼자 살자고 이래?
최기자 (폭발) 똥오줌은 못 가려도, 기사가 되갓고 남의 똥구녕은 빨지 말아야제!

부장 앞에 사직서를 던지고 나가버리는 최기자.

76. 순천 공업사 / 낮

신발 봉투를 품에 안은 만섭이 공업사에 들어서면,
수리를 마친 공업사 직원이 만섭의 택시를 청소 중이다.

만섭 얼맙니까?

직원 3만원은 주셔야겠어라.

꼬깃꼬깃 접어 놓은 비상금을 전부 꺼내 계산을 마친 만섭이 운전석 문을 여는데,
운전석 위에 뜯지않은 필름통이 놓여 있다. 멍칫하는 만섭.

직원 소지할 때 봉께, 뒤쪽에 떨어져 있어갖고... 새것 같던디?

만섭 ...

직원 버려 불까요?

만섭 네.

필름통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직원의 뒷모습을 굳은 얼굴로 쳐다보는 만섭.

77. 순천 시내 / 낮

횡단보도에 멈춰서는 만섭의 택시. 티격태격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들.
만섭이 조수석에 올려놓은 봉투를 쳐다보더니, 신발을 꺼내본다.

만섭 (소매로 먼지를 닦으며) 예쁘다. 예뻐. 맨날 운동화만 사주고, 구두 한 켤레
를 못 사줬는데. 은정이가 얼마나 좋아하겠어.

만섭이 라디오를 켜고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한다.

만섭 (차를 출발하며, 노래)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 슬픔도 괴로움도 모
두 모두 비켜라 / 안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 껴하고 해뜰날 돌아온단
다 / 껴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만섭이 어깨를 들썩이며 힘차게 노래를 따라 부르는데, 목이 메어온다.
그대로 차를 세우는 만섭.

만섭 은정아, 아빠 어떡하냐... 아빠 어떡해...

뒤차들의 클락손 소리가 이어지는데,
결국 중앙선을 넘는 만섭.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차들이 급하게 멈춰서고,
만섭, 주저함 없이 한 번에 유턴한다.
만섭의 택시가 왔던 길을 빠르게 되돌아간다.

78. 순천공업사 / 낮

공업사로 뛰어 들어오는 만섭. 직원이 무슨 일인가 싶어 쳐다보는데,
만섭은 쓰레기통을 열어 필름통을 꺼낸다.

직원 버리는거 아녘어라?
만섭 (다급) 전화 한 통 만 더 씹시다.

전화벨이 울리고, 상구가 전화를 받는다.

만섭 상구니?
(상구) 어? 아저씨?!
(은정) (전화기를 뺏어) 아빠!!!! 아빠 어디예요? 아빠 왜 안 오세요?
만섭 은정이 깬어? 많이 아퍼?
(은정) 응... 이제 괜찮아요. 하나도 안 아파요.
만섭 (울컥) 넌 왜 맨날 안 아프대. 너, 또 아빠한테 거짓말 할래?
(은정) 어젠 많이 아팠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아빠, 우리 소풍 안가요?
만섭 은정아, 미안해. 아빠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우리 소풍은 다음에 가자.
(은정) (서운한 티가 역력) 다음에 언제요?
만섭 (마음이 찢어진다) 아빠가 손님을 두고 왔어. 택시에 꼭 태워줘야 하는 손님
인데... 은정아, 아빠가 손님만 태워주고 금방 갈테니까 아줌마 말씀 잘 듣
고. 상구랑 싸우지 말고 있어.
(은정) (서운한 티가 역력) 네...

만섭의 눈시울이 붉어진다.

79. 광주 가는 길 몽타주 / 낮

색색의 연등을 빠르게 지나치며, 국도를 질주하는 만섭의 택시.
조수석에 놓인 은정의 구두 옆으로 피터의 필름통이 보인다.
광주 방향 이정표가 보이자 만섭은 택시의 속도를 더욱 높인다.

국도를 빠져나간 만섭의 택시가 샛길로 접어든다.
덜컹덜컹 비포장도로에도 만섭의 택시는 점점 더 속도가 높아진다.

80. 계엄군 사령부 작전상황실 / 낮

태극기와 광주지역 전도가 커다랗게 걸려 있는 작전 상황실.
사령관이 장성들과 군간부들을 다그친다.

사령관 (답답) 벌써 작전 4일차인데, 여태 정리를 못 하고 있으면 어찌자는 거야?
간부들 ...
사령관 그냥 다 쓸어버리면 될거 아냐?!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무조건 오늘은 정
리해!
간부1 여론도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반 시민들까지 시위에 합세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령관 (말 자른다) 야, 이 새끼야, 니가 왜 여론을 신경써? 니가 공무원이야?
다른데 신경쓰지 말고, 군인은 적들로부터 고지 점령이라는 목표 달성만 하면 되는거라고. 그니까 소총을 쓰든 박격포를 쓰든 상관없으니까, (둘러보며)
오늘 우리가 점령할 고지는 여기 광주고, 오늘 안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광주를 점령한다. 알아들어?!

살기어린 눈빛을 번뜩이는 사령관.

81. 황기사의 집 / 낮

만섭이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황기사의 아내가 대문을 열어준다.
만섭을 보고 흠칫 놀라는 황기사의 아내. 두 눈이 퉁퉁 부어 있다.

만섭 어디... 갔습니까?
황기사처 병원이요.
만섭 (불안) 병원이요?

82. 광주 시내 / 낮

광주 시내를 질주하는 만섭의 택시.
아까와는 달리, 도로 곳곳에 금남로로 향하는 시위대의 모습이 보인다.
굳은 얼굴로 생각에 잠겨 있는 만섭.

황기사처(V.O) (울음) 아침에, 기자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라. 재식이 학생 시체를 찾았다고.
공수 놈들이 끌고 가다가, 중간에 숨을 거두니까, 그냥 논두렁에 버리고 갔나봐요...

INS. 만섭의 택시 안. “대학가요제 나갈라구요.” 해맑게 웃는 재식.
INS. “나가 아저씨 맘, 다 아니께. 걱정마쇼잉.” 만섭을 향해 미소를 짓는 재식.
INS. 황기사 아들과 함께 개다리춤을 추는 재식. 그 모습에 즐거워하며 크게 웃는 사람들.
INS. 권총에 맞고 쓰러진 재식이 만섭에게 빨리 도망가라고 간절한 눈빛을 보낸다.

만섭의 앞을 달리던 트럭이 멈춰서더니, 길가의 시위대를 태운다.
트럭을 따라 만섭도 차를 세우면,
트럭 위의 청년 하나가 만섭에게 미안하다는 의미로 고개를 숙여 인사한다.
재식 또래의 시위대들을 바라보는 만섭의 마음은 심란하기만 하다.

83. 병원 / 낮

넘쳐나는 부상자들로 가득한 병원안은 어제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머리가 깨지고, 복부에 피가 나고, 다리가 뭉개진 부상자들이 병원 복도 바닥에까지 누워있다. 그 참혹한 모습에 만섭이 고개를 돌리는데, 복도 끝 병실에서 촬영중인 피터가 보인다.

- 병실 안

좁은 병실 벽면을 따라 나란히 놓인 관들. 태극기가 덮여진 시신들이 눕혀져 있다. 황기사가 사람들과 함께 시체를 닦고 정리하는데, 이를 촬영중이던 피터가 멍한 표정으로 서 있는 만섭을 알아본다.

피터 **미스타킴!**

그 소리에 놀란 황기사도 만섭을 쳐다보더니, 맨 바닥에 놓여 있는 시신을 가리킨다. 시신을 덮은 태극기 밖으로 빠져나온 피투성이의 양말과 바지, 재식이다. 만섭이 황급히 다가가 태극기를 젖히는데, 부릅뜬 눈, 처참하게 깨진 머리, 멍투성이 얼굴에 새겨진 총알자국까지. 재식의 참혹한 얼굴에 충격을 받는 만섭.

황기사 **광주에 관이 부족해갖고, 학생들이 관 구하러 갔당게요. 관에라도 눕혀 놓고 갈라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구만요.**

만섭이 애써 울음을 삼키며 재식의 부릅 뜬 눈을 감겨주는데, 반쯤 벗겨진 재식의 양말이 눈에 들어온다.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재식의 양말을 제대로 신겨주는 만섭.

만섭의 임산부 하나가 일가족과 함께 병실 안으로 뛰어들어온다. 반쯤 정신이 나간 표정으로 시신들을 살피던 임산부가 남편의 시신이 놓인 관 앞에 털썩 주저 앉는다.

임산부 (시신을 일으키며) **개똥아버지, 개똥아버지... 여서 뭐하는겨. 집에 가야지. 눈 좀 떠봐요. 우리 개똥이 이름도 여태 못 지었잖아요. 우리 개똥이가 금방 아빠 보러 나올 것인디, 개똥아버지는 개똥이 얼굴 궁금도 안해요. 나 우리 개똥이 애비 없는 자식 못 만들어요. 금께, 개똥 아버지! 우리 집에 갑시다 잉. 여보, 나 무서워, 눈 좀 떠봐. 나 혼자 우리 개똥이 어떻게 키우라고...**

남편의 시신을 붙잡고 오열하는 임산부. 달래던 가족들도 눈물을 터뜨린다. 자리를 피해주러 병실 밖으로 나온 만섭과 황기사. 벽에 기댄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병실에서 들려오는 임산부의 통곡 소리에 참았던 눈물이 흐르는데,

남자 (뛰어들어오며) **여기요, 여기!!! 여기 좀 도와주쇼잉!!!!**

한 무리의 사람들이 피가 흥건한 부상자들을 업고, 안고, 들것에 실은 채 복도를 뛰어들어온다. 병원의 의료진들이 달려와 이들을 응급실로 안내하는데, 부상자들을 옮기던 택시기사들이 황기사를 알아본다.

후배기사 아따 성님, 여기 계셨소?
 황기사 뭐대? 뭘 일이대?
 동료기사 이것들이 참말로 광주 사람들 씨를 말려볼라고 작정을 해부렸구만.
 황기사 (쳐다보면)
 후배기사 애국가가 나오니까, 다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느디, 이것들이 그냥 막 사
 람들한테 총을 갈겨 버렸당께요.
 만섭 (놀란다)
 동료기사 후딱 다시 가봐야혀. 계속 총질을 해쐈는거, 일단 다친 사람들부터 병원으
 로 옮기자고 해서 온거여.

그때, 병실에서 나오는 피터.

후배기사 (화들짝) 이 양반, 여태 이라고 있으면 어쩐단가...
 피터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쳐다보면)
 후배기사 (황기사에게) 시방 사람들이 죄다 순천이나 나주로 무기 구하러 갔당께.
 그거 알든 공수놈들이 광주 길을 완전히 막아볼 것인디...

심란한 얼굴로 피터를 쳐다보는 만섭과 황기사.

84. 병원 주차장 / 낮

나란히 주차되어 있는 황기사와 만섭의 택시.

만섭 금남로로 갑시다.
 황기사 (만섭을 막아서며) 지금 뭘 소리를 하요. 바로 서울로 출발하쇼잉.
 만섭 (쳐다보면)
 황기사 아까 못 들었소? 시방 공수놈들이 그냥 막 사람들한테 총을 갈긴다 안혀요.
 만섭 그러니까 가야쥬. 가서 찍어야할거 아닙니까.
 황기사 !!!

85. 광주시내 도로 / 낮

황기사의 택시를 따라 이동하는 만섭의 택시.
 만섭과 피터, 둘 다 긴장감에 아무 말이 없는데,
 타타타탕!!!! 금남로에서 들려오는 총소리에 만섭과 피터의 불안한 시선이 잠시 부딪힌다.
 카메라에 필름 매거진을 갈아끼우는 피터. 만섭이 쳐다보자,

피터 (영) 미스타킴,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필름이다.

비장한 얼굴로 택시의 속도를 높이는 만섭.

86. 금남로 인근 / 낮

금남로 도로변 건물 사이사이로 피해 있는 사람들. 그 사이로 만섭 일행이 모습을 드러낸다.
금남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부상자들과 많은 수의 시신을 바라보는 만섭.
보고 있어도 눈 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는다.
피터가 그런 금남로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하는데,

20,30대 시민들 몇 명이 하얀 천을 흔들며 들것을 들고 금남로에 내려선다.
숨죽이며 지켜보는 시민들.
들것을 든 사람들이 피흘리며 쓰러져 있는 부상자에게 다가가 부상자를 옮기려하는데,
타타타탕! 일제히 총탄이 쏟아진다.
하얀 천과 들것과 함께 그대로 고꾸라지는 사람들.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시민들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온다.

시민1 (울분) 시방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구만. 참말로, 우리를 다 죽여볼라고 하
 는갑네.
시민2 아따... 근다고, 저라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저대로 내버려둔다요. 진짜 환
 장하겠구마잉.

만섭도 한없이 안타까운 시선으로 부상자들을 쳐다보지만, 할 수 있는게 없다.
그때, 뒤에서 트럭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나온다. 공수부대를 향해 돌진하는 트럭.
트럭 기사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더니, 트럭을 가로로 멈춰세워 바리케이트를 만든다.
트럭에서 내리는 기사. 부상자를 끌고 트럭으로 이동하는데,
타타타탕!!! 총소리와 함께, 부상자도, 트럭 기사도 쓰러지고 만다.

금남로를 뒤덮은 적막을 깨는 또 한 대의 버스. 그리고 버스를 향해 빗발치는 총알.
버스에서 사람들이 내려 다행히 부상자 몇을 구하지만, 또다시 총에 맞고 쓰러진다.
쓰러진 사람 중에는 노파의 막둥이, 용표의 얼굴마저 보인다.
만섭이 들고 있던 피터의 장비를 피터에게 건넨다.
피터,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만섭을 쳐다보는데,

황기사 (만섭을 붙잡으며) 시방, 어디 갈라고?
만섭 내가, 운전 하나는 자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황기사 (잠시 갈등하더니) 뭘 소리를 하는겨. 운전하면, 이 황태솔이제. 서울 사람이
 나서는데, 광주 사람들이 가만 있어가 되겠소?

황기사와 만섭의 시선이 뜨겁게 마주친다.
그리고 하나둘, 만섭과 황기사를 따라나서는 사람들.
그때, 인파들 사이에서 피터를 주시하고 있는 장대위와 사복특공조들의 모습이 보인다.

87. 금남로 뒤편 / 낮

트럭이며 버스, 택시들이 즐비하게 세워져 있다.
각각 버스 운전석에 앉은 만섭과 황기사. 긴장한 얼굴로 시동을 켜다.
수인사를 주고 받는 두 사람.
만섭이 기어를 넣고 출발하자, 황기사도 곧이어 버스를 출발한다.
그 뒤로, 십 수대의 버스와 트럭들이 만섭과 황기사의 뒤를 따른다.
금남로로 향하는 차량행렬.

88. 금남로 / 낮

만섭을 위시한 차량행렬이 금남로에 모습을 드러내자, 환호하는 사람들.
공수부대의 총알이 차량행렬을 향해 쏟아진다.
아슬아슬, 수신호를 주고 받으며, 버스에 버스를 겹겹이 쌓는 만섭과 사람들.
공수부대의 총알은 버스로 만든 바리케이트에 막혀 확연히 줄어들었다.
버스에서 내린 만섭과 사람들, 부상자들을 옮기기 시작한다.
피터가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데,

시민3 **우리도 나갑시다!!!!!!**

시민들, 함성을 지르며 우르르 쏟아진다.
부상자를 나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최기자의 모습도 보인다.

만섭과 황기사가 함께 부상자의 팔다리를 들어 옮기는데, 순간 휘청하는 황기사.
만섭이 쳐다보면, 황기사의 팔에 피가 베어나오고 있다. 놀라는 만섭.

황기사 (인상을 쓰면서도) **암시랑토 안하요. 끄덕 없어라...**
최기자 **나오소, 나오소.**

만섭이 최기자를 알아보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최기자.
달려온 사람들에게 부상자를 넘기고, 만섭과 최기자가 황기사를 끌고 나온다.

피터 (황기사를 보고 놀라서, 영) **총에 맞았냐? 다친거냐?**
황기사 **암시랑토 안하다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냥 쪼까 스친거여.**

그때, 페퍼포그차가 시민들을 향해 최루탄을 쏟아붓자, 최루가스가 금남로를 뿌옇게 뒤덮는다.
동시에 거대한 군함발소리와 함께, 앞으로 뛰어 나오는 공수부대원들.
버스 바리케이트를 넘어 금남로 안으로 들어서더니, 다시금 도열하기 시작한다.
당황한 시민들은 뒤로, 뒤로, 물러난다.
그런 시민들을 향해 총을 발포하는 공수부대원들.

도로변으로 피해 있던 만섭을 포함한 사람들, 속수무책으로 그 광경을 바라 볼 수 밖에 없다.

피터가 울분을 삼키며 그 장면들을 카메라에 담고 있는데,
좌르륵, 텅- 텅- 마지막 필름이 감기며, 공회전 하는 소리가 들린다.

피터 (영) 더 이상 필름이 없다.

안타까운 시선으로 서로를 쳐다보는 피터와 만섭.
탕! 탕! 탕! 여전히 금남로는 총소리로 가득하다.
그때, 최기자를 향해 다급히 뛰어오는 기자1.

기자1 선배!!!! (주변을 살피고는 목소리를 낮춰서) 뒤쪽의 공수부대가 좀 전에 빠져버려라.

사람들 (쳐다보면)

기자1 아무래도 여그가 인자 완전히 고립될거 같구만이라. 나주나 순천 쪽에서 시위대가 들어오는 것을, 공수놈들이 알아버린 것 같소.

최기자 (만섭에게) 시방 바로 나가셔야겠소. (피터에게, 영) 지금 나가지 않으면, 나가는게 아예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만섭이 금남로에 남아 있는 많은 사람들을 쳐다보며 갈등하는데,
황기사가 그런 만섭을 쳐다본다.

황기사 인자 여그 일은 여그 사람들에게 맡겨볼고, 저 놈들 그짓말이나 속시원히 까발려주소잉.

최기자 (피터에게, 영) 염치 없지만, 부탁드립니다. (종이 몇 장을 건네며) 글고, 이건 혹시 모르니까.

만섭이 종이를 받아 펼치면,
기사로 쓰려고 했던 18일부터 광주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다.

최기자 인자 빨리 가소. (눈짓으로 주변을 가리키며) 분위기가 쏸까... 그렇구만.

피터 주변으로 포위를 점점 더 좁혀오는 사복특공조.
만섭도, 황기사도 그런 사복특공조의 움직임을 눈치챈다.

그때, 공수부대의 페퍼포그차가 시민들을 향해 다시금 최루탄을 쏟아붓고,
최루가스로 뿌옇게 뒤덮이는 금남로에 총소리가 울린다.
그와 동시에, 최루가스 한복판으로 뛰어드는 만섭과 피터.
눈물, 콧물을 흘려가며 연신 기침을 해대면서도 피터의 손을 꼭 쥔 채,
눈에 보이는 건물을 향해 달리는 만섭.

도망치는 시민들 사이에서, 만섭과 피터를 발견하는 장대위.
시민들을 밀치고, 때리며 만섭과 피터를 쫓는다.

89. 금남로 뒤편 골목 / 낮

건물 뒷문으로 빠져나온 장대위와 사복특공조. 만섭과 피터는 보이지 않는다.

장대위 **흠어져서 찾아! 절대 놓치면 안된다!!!!**

골목 끝에서 시동걸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택시 한 대가 썩하니 지나간다.
조수석에 앉은 키 큰 남자,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다.

장대위 **저 차다!!! 잡아!!!**

골목 곳곳에 흠어져 있던 사복 특공조들이 튀어나와 택시를 가로막는다.
결국 그 자리에 멈춰서는 택시.
장대위가 뛰어와 조수석 문을 열어 제치는데, 만섭과 피터가 아니다.
운전석에 앉은 황기사의 후배기사가. 조수석에는 모자를 눌러쓴 황기사가 앉아 있다.

황기사 (애써 태연) **뭘때시 그런데요?**

장대위가 황기사를 위아래로 훑어보는데,
키가 커보이던 황기사, 옷가지들을 잔뜩 깔고 앉아 있다.

황기사 (다급) **나가... 치질이 심해갖고...**

장대위 **이 새끼들 어딴어?**

황기사 **누구...?**

장대위 (권총을 빼서 황기사에게 겨눈다) **이 새끼들 어딴냐고?!**

황기사 (겁에 질려 더듬더듬) **나가... 치질 땀시... 자꾸 피가 나서...**

그때, 골목 반대편에서 만섭의 택시가 빠르게 지나간다. 조수석에는 피터다!
검은 짙차 한 대가 다가와 장대위 앞에 멈춰선다.
장대위를 태운 검은 짙차가 만섭의 택시를 쫓는다.

텅빈 골목의 황기사, 만섭의 택시가 사라진 방향을 불안한 시선으로 쳐다본다.

90. 금남로 인근 골목 / 낮

골목을 질주하는 만섭의 택시.
만섭과 피터,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타타타탕!!! 금남로에서 들리는 총소리.
만섭이 급브레이크를 밟는다. 끼이익 소리를 내며 멈춰서는 만섭의 택시.

핸들을 쥔 만섭의 두 손에 잔뜩 힘이 들어간다.
핸들을 바라보며, 거친 호흡을 내뿜는 만섭의 갈등이 심해지는데,
피터가 핸들을 쥔 만섭의 손을 감싼다.

피터 (영) 미스타킴, 우리는 가야 한다.

피터를 쳐다보는 만섭의 두 눈에 눈물이 맺히는데,
타타타탕!!! 금남로의 총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울음을 삼키며 다시 출발하는 만섭. 속도를 높여 골목길을 빠져나가는 만섭.

요철이 나와도 속도를 늦추지 않자, 덜컥거리는 만섭의 택시.

피터 (영) 광주가 완전히 막혔다는데, 괜찮겠냐.
만섭 돈 워리.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공항까지 갈거다.

만섭이 굳은 표정으로 더욱 속도를 높인다.

91. 샛길 인근 비포장도로 / 낮

덜컥거리는 비포장도로를 달리며, 아까의 샛길로 향하는 만섭의 택시.
하지만 샛길은 이미 두꺼운 철조망으로 완전히 막혀있다.
철조망 가운데 매달린 빨간 글씨의 '통제구역' 표지판.
만섭이 차를 멈춰세우고는 황기사가 건넌 약도를 펼친다. 약도에 그려진 또하나의 샛길.
만섭이 불안한 얼굴로 급히 차를 돌린다.

92. 광주시내도로 / 낮

도로를 질주하는 검은 짙차들.
'서울' 방면 이정표가 가리키는 쪽으로 일제히 방향을 튼다.
초조한 표정의 장대위.

93. 비포장도로 / 낮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또 다른 샛길을 찾는 만섭. 곡선길을 따라 커브를 도는데,
만섭의 정면에 검문소가 세워져 있다. 만섭의 택시를 쳐다보는 군인들.
이미 돌아나가긴 틀렸다. 망연자실하는 만섭. 피터도 긴장하는데,
군인들이 만섭의 택시를 멈춰세운다.

군인1 어디 가십니까?
만섭 (애써 미소) 손님 모시고 서울 가는 길인데요.

군인2가 만섭의 택시 번호판과 만섭의 얼굴을 쳐다보는데,
임시 초소 안에서 중사 계급장을 단 군인이 고개를 내밀며 묻는다.

중사 (다가오며) 서울 택시야?
군인2 아닙니다. 전남 택시입니다.
군인1 (만섭에게) 집이 어디십니까?
만섭 (당황) 집이요? 집은...왜?
군인2 (버럭) 이 새끼가! 대답 안해? 너, 전남 택시가 말투가 왜 그 모양이야?
만섭 이사온지가 얼마 안되가지고...
피터 (다급, 영) 무슨 일입니까? 왜 못 가게 막는 겁니까?
군인2 (군인1에게) 이 새끼, 지금 뭐라는거야?
군인1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중사 (군인들에게) 비켜. (피터에게, 영) 어디 가는 길입니까?
피터 (영) 친구를 만나러 왔다가, 시위대 때문에 위험해서 서울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군인1,2 (박중사를 존경의 눈빛으로 쳐다본다)
중사 내리십시오.
만섭 (당황) 네? (피터를 쳐다보는데)
중사 둘 다 내리십시오. (피터에게, 영) 일단 내리십시오.
피터 (영) 왜 그러는거냐?
군인2 빨리 안 내려? 외국인이라고 봐줄 줄 알아?

군인2가 총을 들고 만섭과 피터를 위협하자, 만섭이 차에서 허둥지둥 내린다.
중사가 차 안을 살피자, 만섭과 피터가 잔뜩 긴장한다.
이렇다 할 짐이 없다.

중사 (만섭에게) 트렁크 좀 봅시다.

트렁크를 여는 만섭이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트렁크가 열리면,
트렁크에 가득찬 색색의 연등과 불교용품.

중사 (만섭을 쳐다보면)
만섭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 앞에 손님, 기념품인데요. 석가탄신일이라고.

중사가 만섭의 트렁크를 뒤지기 시작한다.
연등과 불교용품 사이에서, 만섭의 택시, '서울' 차번호판이 드러난다.
만섭이 하얗게 질리는데, 중사가 만섭을 힐끔 쳐다보더니,

중사 (아무 일 없다는 듯 군인1,2에게) 보내줘.
군인2 외국인은 일단 잡으라고.
중사 (말 자른다) 기자도 아니고, 서울 택시도 아닌데 어쩌게?

군인2 ...
중사 내 말 안들려? 보내라고.

만섭이 피터에게 빨리 차에 타라고 눈치를 준다. 택시에 타는 두 사람.
군인1,2가 어쩔 수 없다는 듯 바리케이드를 열려 하는데,
그때, 초소에서 울리는 무전. 초소 안의 군인3이 무전을 받는다.

(무전) 외국기자가 탄 택시가 금남로에서 도주했다. 근무 중 외국인이 탄 택시 발견
시 바로 연락바람.

군인3 외국인이 탄 택시 발견하면 연락하라는대요?!

군인2가 그럴 줄 알았으며, 바리케이드를 다시 닫으려는데,
슬그머니 기어를 바꾸는 만섭. 그대로 전속력으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나간다.
순간, 군인2가 만섭의 택시에 매달리고,
울상을 지으며 택시의 속도를 높이는 만섭. 결국 군인2가 만섭의 택시에서 떨어진다.
군인1,2의 총이 만섭의 택시를 향하고,
초소의 군인들이 반사적으로 만섭의 택시를 향해 총을 발사한다.
군용짚차를 타고 만섭을 쫓기 시작하는 군인들.

군인3 (다급, 무전) A-34, A-34. 외국인을 태운 택시가 도주했습니다. 차량번호 전
남 0000. 차량번호 전남 0000.

중사가 복잡한 표정으로 만섭의 택시를 쳐다본다.

94. 비포장도로 인근 / 낮

주변을 수색하던 사복특공조의 검은 짚차들.
무전을 받고는, 급히 핸들을 꺾어 전속력으로 달린다.

95. 비포장도로 - 청보리밭 / 낮

덜컹덜컹, 비포장도로를 질주하는 만섭의 택시.
군용짚차가 맹렬히 추격한다.
만섭이 사이드미러로 쫓아오는 군용짚차를 확인하는데,

피터 (다급) 미스타킴!!!!

만섭이 쳐다보면, 정면에 검문소가 하나 더 보인다.
부랴부랴 차를 타고 만섭을 향해 쫓아오는 군인들.

2대의 군용짚차가 만섭의 택시 앞뒤로 거리를 점점 좁혀온다.

만섭 (알아듣거나 말거나) **꼭 잡아요!**

순간, 핸들을 왼쪽으로 급히 꺾는 만섭. 비포장도로 옆으로 펼쳐진 청보리밭으로 들어간다.
만섭을 쫓던 2대의 군용짚차도 차례로 청보리밭으로 진입한다.

무서운 속도로 경사진 청보리밭을 가로지르는 만섭.
택시가 심하게 흔들린다. 만섭이 이를 악물며 엑셀을 밟는다. 출렁이는 청보리 물결.
점점 더 택시의 속도는 빨라지고, 군용짚차들도 속도를 높여 만섭과의 거리를 좁혀온다.
군인1이 만섭을 향해 총을 겨누는데, 갑자기 방향을 트는 만섭의 택시.
보리밭 구석에 쌓여있던 보릿대며 폐농기구들이 군인1의 군용 짚차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핸들을 꺾을 틈도 없이 속도를 이기지 못한 군용짚차가 그대로 쿵! 부딪힌다.

보리밭을 빠져나가는 만섭의 택시를 쫓는 군용짚차는 이제 한 대뿐이다.

96. 추격 : 국도 - 좁은 길 - 시골 길 / 낮

국도에 들어서면 만섭의 택시. 군용짚차와의 거리가 제법 벌어졌다.
만섭은 안간힘을 쓰며, 택시의 속도를 높이는데,
탕! 소리와 함께 택시 뒷좌석의 유리창이 깨진다.
움찔, 놀라는 만섭과 피터.
사방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사복특공조의 검은 짚차들.
만섭의 택시를 향해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는 검은 짚차들.

피터 (다급) **미스타킴, 이제 어떡합니까?**

무섭게 따라붙는 검은 짚차들.
검은 짚차 한 대가 만섭의 택시를 들이받는다. 휘청하는 만섭의 택시.
만섭이 핸들을 붙잡고 중심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쓴다.
검은 짚차가 만섭의 택시를 다시 들이받으려 하자, 이를 악물고 힘껏 엑셀을 밟는 만섭.
가까스로 돌진해 오는 검은 짚차를 피하는 만섭.
하지만 어느새 만섭의 택시 주변으로 검은 짚차들이 빼곡하다.
만섭이 피터를 절망적인 시선으로 쳐다보는데,

뒤에서 요란한 클락슨 소리가 들린다.
만섭과 피터가 뒤를 돌아보면, 수십 대의 택시가 모습을 드러낸다.
어안이 병병해진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는 만섭과 피터.

전속력으로 달려 검은 짚차들을 추월해 나가오는 택시들.
황기사를 포함한 광주 기사들의 택시. 수십 대가 전부 다 똑같이 생겼다.
속속 만섭의 택시 주변으로 섞이는 택시들. 만섭의 택시가 구별되지 않는다.

만섭과 피터,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
탕! 총소리와 함께 택시 기사 하나가 장대위의 총에 맞고 고꾸라진다.
그대로 옆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택시.

장대위 (무전) 개새끼들! 전부 다 썩버려!!!

속도를 높이는 택시들. 만섭의 택시 앞에도 몇 대가 자리를 잡는다.
그리고 그 택시들을 쫓는 검은 짚차들.
장대위를 포함한 사복특공조원들이 택시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한다.

택시 유리창이 깨져나가고, 총에 맞고 쓰러지는 택시 기사. 택시는 국도 옆 밭에 처박힌다.
어느 택시의 타이어에 총알이 명중하고, 쿵, 쿵! 택시와 검은 짚차들이 뒤엉킨다.
하나둘 떨어져나가는 택시들.
만섭이 안타까운 시선으로 택시들을 쳐다보는데, 갈림길이 나온다.

양쪽으로 갈라지는 택시들.
만섭도 한쪽길로 들어서는데, 만섭의 택시 바로 옆으로 따라붙는 택시 한 대. 황기사다.
만섭이 황기사와 뜨거운 시선을 마주치는데, 뒤에서 두 대의 검은 짚차가 다시 속도를 높여 따라오기 시작한다. 동시에 뒤를 확인하는 황기사와 만섭.
황기사가 만섭에게 미소와 함께 수인사를 보내자, 황기사의 수인사에 놀라는 만섭.
황기사가 속도를 늦추기 시작하자, 다른 택시들도 황기사를 따라 속도를 늦춘다.
검은 짚차의 앞을 가로막는 택시들.
타앙!!! 사복특공조 하나가 택시를 향해 총을 쏘는데,
속도를 높여 후진하는 황기사. 사복특공조의 차를 들이받는다.

장대위를 태운 짚차가 엉켜있는 차들을 지나쳐 만섭의 택시를 쫓는다.
만섭의 택시와 장대위의 지프차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혀진다.
안되겠다고 판단한 만섭이 국도 옆으로 나 있는 아주 좁은 길로 급히 핸들을 꺾는다.
덜컹덜컹, 바닥의 돌이 튀며 만섭의 차 바닥에 부딪히고,
길 양 옆의 나무들이 사정없이 만섭의 택시 양 옆을 압박하며 기스가 난다.
연달아 박살나는 사이드미러. 아슬아슬 좁은 길을 달리는 만섭의 택시.

장대위가 운전석의 만섭을 향해 권총 방아쇠를 당긴다.
탕! 탕! 탕! 만섭의 뒷 유리창이 깨지며, 총알이 만섭의 팔을 스친다. 화들짝 놀라는 피터.
만섭은 통증에 얼굴을 일그러뜨리면서도, 필사적으로 차의 속도를 높인다.
장대위의 검은 지프차도 속도를 높인다.

만섭의 택시가 좁은 길을 빠져나오는데, 택시 정면에서 다가오는 자동차. 아슬아슬 피한다.
자동차 기사가 놀라서 만섭을 향해 욕을 퍼붓는데, 장대위의 지프차도 좁은 길을 빠져나온다.

장대위 (당황) 어!!!! 어!!!!

장대위의 정면에 나타난 자동차.

운전석의 특공조가 핸들을 꺾어보지만, 황! 자동차와 장대위의 검은 지프차가 충돌하고 만다.
달리던 속도 때문에 밀려나가는 검은 지프차. 빙그르르 돌더니 그대로 전복된다.

어느새 멀어지는 만섭의 택시.

만섭과 피터가 동시에 뒤를 쳐다보고는, 그제서야 거친 숨을 토해낸다.

97. 시골길 / 저녁

어느 시골. 만섭의 택시가 길가에 멈춰 서 있다.

박살난 양쪽 사이드 미러, 깨진 차유리며 찌그러지고 기스 투성이의 차체에 총알자국까지.

담배를 피우며 택시를 바라보는 만섭의 얼굴에 심란함이 가득한다.

공중전화로 통화를 마친 피터가 그런 만섭을 안쓰럽게 쳐다본다.

- 시간경과

차에 기대 선 만섭. 게트르가 만섭의 팔에 손수건으로 붕대를 감아준다.

피터 (영) 진짜 병원 안 가봐도 괜찮겠어요?

만섭 (황기사 흥내) 암시랑토 안하다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냥 쪼까 스친거여.

피터 (황기사 흥내인줄 안다. 짠한 미소)

만섭 다들, 괜찮은지 모르겠네. (피터를 쳐다보고) 괜찮겠지?

피터 ...

노을이 지기 시작하는 하늘을 뒤로 하고, 달리는 만섭의 택시. 서울번호판을 달았다.

98. 주인집 / 밤

주인집 여자가 은정의 화상 상처에 약을 발라주는데,

상구 (오만상을 찌푸리며 몸서리) 으으으으음!!!!

주인집여자 (상구를 쥐어박으며) 은정인 가만 있는데, 니가 왜 난리야?

은정 (오바하지 말라는 표정으로 상구를 쳐다본다)

주인집여자 안 아퍼?

은정 참을만해요.

주인집여자 (은정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어휴... 어린 애가...

주인집 여자가 붕대를 감는데, 밖에서 차소리가 들린다.

은정 (뛰어나가며) 아빠다!!!!

99. 만섭의 집 앞 골목 / 밤

은정이 뛰어나와보지만, 만섭의 택시가 아니다.
지나가는 차를 실망스런 표정으로 쳐다보는 은정.

상구 (쫓아나오며, 메롱메롱) 조금 있으면~ 통금인데~
은정 (상구를 노려본다)
상구 (메롱메롱) 소풍간다고, 계란 삶다가~

퍽! 상구를 한 대 치는 은정.
놀란 상구가 은정을 한 대 치려 하는데, 뒤늦게 골목에 나온 상구모가 상구의 목덜미를 낚아챈다.

주인집 강상구!!!! 이놈의 자식!!! 아픈 친구를 괴롭혀?!
상구 (억울) 은정이가 먼저....
주인집 (말 자른다) 어휴, 이게 누굴 닮아가지고... (은정에게) 은정아, 들어가자. 아
빠 곧 오시겠지.
은정 (상냥) 네. (상구에게 메롱)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빈 골목을 잠시 쳐다보는 은정.

100. 서울시청 / 밤

통화중인 보안사 대령.

대령 네. 지금 백방으로 찾고 있습니다. 네.

노크소리와 함께 황급히 사무실로 들어오는 장교. 통화중인 대령에게 경례를 붙인다.
대령이 수화기를 내려놓으면,

장교 찾았습니다!
대령 (쳐다본다)
장교 내일 오전 10시 일본행 비행기 예약했습니다.
대령 확실해?
장교 네. 공항으로 직접 전화했답니다.
대령 (피식) 외신기자들, 조선폰텔에 묵지?
장교 네. 우리 애들, 호텔로 보내놨습니다.
대령 공항도 계속 체크하고.
장교 네.

101. 공항 / 밤

항공사 데스크 직원에게 다가가는 피터.

피터 (영) 지금 일본가는 비행기를 타고 싶은데요.

공항직원 (영) 여권 주시겠어요.

피터가 공항직원에게 여권을 건네면, 피터의 여권을 확인하는 직원.

만섭은 피터의 옆에서 초조한 얼굴로 연신 공항 안을 두리번거린다.

출국 심사대에서 공항직원들이 출국하는 사람들의 짐을 확인하는 모습에 불안해지는 만섭.

직원 (영) 피터씨. 내일 오전 10시 비행기 예약되어 있으신데요?

피터 (영) 네. 그건 취소해주시구요. 아, 1등석으로 주세요.

직원 (비행기 티켓을 건네며, 영) 네. 취소해드렸습니다. 지금 바로 출국수속 밟으시면 됩니다.

피터 (영) 감사합니다.

티켓을 챙긴 피터가 만섭을 쳐다보는데,

만섭의 시선은 신혼여행을 다녀온 신혼부부에게로 고정되어 있다.

신혼 부부의 손에 들린 선물용 쿠키깡통.

102. 공항 주차장 / 밤

공항 주차장 구석에 세워져 있는 만섭의 택시.

조수석에 쌓여 있는 쿠키통.

만섭과 피터가 쿠키통에서 쿠키를 열심히 빼낸다.

피터 (쿠키통 하나를 만섭에게 건네며, 영) 이건 미스타킴 딸, 갖다줘라.

만섭 (끄덕끄덕) 땡큐.

피터가 미소를 지으며 쿠키통 5개를 차례로 쌓은 뒤, 화려한 리본으로 묶는다.

빼뿔빼뿔 영 모양이 이상하다.

그 모습이 지켜보던 만섭이 쿠키통을 가져다가 리본을 묶는다.

단번에 제법 그럴듯한 모양으로 묶인다.

피터 (수첩을 내밀며) 미스타킴, 연락처 하나만 적어줘요.

만섭 (당황) 전화번호? 왜? 와이?

피터 (택시를 가리키며, 영) 미스타킴 택시. 수리비는 내가 주겠다고 했잖나.

만섭 ...

피터 (영) 나는 뉴스만 내보내고 바로 다시 한국에 올꺼다. 그때 미스타킴에게 연락하겠다.

빈 수첩을 들여다보며 망설이던 만섭,
운전석 옆 박스에 놓인 사각성냥과 구겨진 담뱃갑이 보인다.

만섭 아까 담배 산다는 걸, 깜빡했네.
피터 (영) 무슨 말이냐?

대답없이 수첩에 연락처를 적기 시작하는 만섭.

103. 공항 사무실 / 밤

양복 차림의 보안사 요원 둘이 한가로이 바둑을 두는데,
노크소리와 함께 공항 직원 하나가 눈치를 보며 안으로 들어온다.

보안사1 뭘니까?
직원 피터란 사람이 좀 전에 공항에서 직접 비행기 티켓을 바꿨다는데요.
보안사2 (화들짝) 몇 시 비행기로?
직원 지금 보딩 시작했거든요.
보안사2 씨팔. 그걸 왜 이제 얘기해?! 당장 비행기부터 못 뜨게 막아!!!
직원 그제, 국내 항공사면 모르겠는데, 미국 항공사라...

보안사 요원들이 욕을 하며 달려나간다.

104. 공항 / 밤

나리타행 비행기를 탑승하라는 안내 방송이 나오자, 시계를 확인하는 피터.
만섭이 쳐다보면, 피터가 고개를 끄덕인다.

피터 코,맙,썸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만섭.
서로를 쳐다보는 두 사람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INS. 공항 계단을 뛰어내려오는 보안사 요원들.

다시금 탑승을 재촉하는 안내 방송이 나오고, 탑승구로 향하는 피터.
만섭이 멀리서 피터의 뒷모습을 지켜본다.
피터가 시간을 다시 확인하더니, 뛰기 시작한다.

피터의 여권을 확인하는 공항 직원.

직원1 (영) 짐 좀 확인하겠습니다.

피터 (긴장, 독) 나 영어 모른다. 독일말로 해달라.

나리타행 비행기 탑승을 알리는 마지막 안내 방송이 나온다.

피터 (시계를 보고, 속사포, 독) 이러다 비행기 늦겠다. 빨리 좀 하자.

직원1 (쿠키통을 가리키며, 영) 이걸 뭘니까?

피터 (독) 보면 모르냐. 쿠키다. 직원들 선물이다.

직원1 (난감하다는 표정으로 직원2를 쳐다보면)

직원2 (피터의 티켓을 확인하고는) 1등석이네. 그냥 보내드려.

직원1 (영) 편안한 비행 되십시오.

탑승구를 뛰어들어가는 피터.

피터를 마지막으로 탑승구의 문이 닫힌다.

동시에 피터가 뒤를 돌아보면, 만섭이 멀리서 피터를 향해 웃는다.

보안사1 (달려오며) 안돼!!!! 막아!!!!

하지만 탑승구 문은 이미 닫혀버렸다. 닫힌 문 앞에서 짜증을 내는 보안사 요원들.

슬그머니 기둥 뒤로 몸을 숨기는 만섭.

105. 다방 / 밤

누군가를 기다리는 만섭. 초조한지 새 담배를 뜯어 꺼내 문다.

만섭이 주머니에서 사각성냥갑을 꺼내 불을 붙이다 말고, 성냥갑을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운전석 옆 박스에 놓여있던 성냥이다. 성냥갑에 선명하게 적힌, ‘사복성냥’

만섭 오복도 아니고, 사복이 뭐냐. 사복이.

그때, 며칠전 만섭의 택시로 산부인과까지 갔던 임산부 남편이 들어온다. 근무 중에 잠시 나온 듯한 차림이다.

기자 (다가오며) 안 그래도 전화 왜 안하시나 했어요.

만섭 (담배와 성냥을 모두 치우며) 일단 차부터...

기자 제가 지금 좀 바빠서요. 저희 아들 낳습니다. 그 날은 정말 감사했어요.

만섭 어이구. 축하드립니다.

기자 (지갑에서 5천원을 꺼내 건네며) 기사님 덕분이죠. 거스름돈은 됐으니까, 그냥 받으세요.

만섭 실은, 제가 차비를 받으러 온게 아니라...

기자 (쳐다보면)

만섭이 다방 안을 살피더니, 품에서 최기자의 메모가 적힌 종이를 기자에게 내민다.

뭔가 싫은 표정으로 종이를 넘기던 기자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진다.

기자 (두리번, 목소리를 낮춰) 광주 다녀오셨어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만섭.

106. 만섭의 집 앞 골목 / 밤

덜덜덜, 골목을 달리는 만섭의 택시.

집 앞에 차를 세운 만섭이 자동차 커버를 씌우려다 말고, 심란한 표정으로 엉망인 차를 쳐다본다.

은정 아빠!!!!

만섭이 돌아보면, 은정이 만섭에게 와락 안긴다.

만섭 (은정의 팔을 살피며) 많이 다쳤어?... (마음이 아프다) 조심하지!!!

은정 (아무 말 못하고 눈물만 그렁그렁)

만섭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정말 미안해...

은정 (만섭을 쳐다보며) 아빠 울어요?

만섭 (눈물이 계속 흐른다) 아니. 아빠 안 울어

상구모와 상구가 골목에 나오는데.

상구 (끼어들며) 아님데?! 아저씨 울잖아요!!!!

상구모 (상구를 끌고 들어가며) 어휴, 애는 지 아빠 닮아가지고 눈치가 없어...

은정 (작은 손으로 만섭의 눈물을 닦아주며) 아빠, 울지마요.

만섭 (은정을 더욱 세게 끌어안으며) 은정아,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정말 미안해.

은정 괜찮아요. 소풍은 다음에 가면 되지.

은정을 끌어안은 채, 그렇게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내는 만섭.

은정이 그런 만섭을 다독인다.

은정을 번쩍 들어올린 만섭이 택시에서 은정의 신발봉투와 과자통을 꺼내 은정에게 내민다.

은정이 만섭을 쳐다보더니, 봉투에서 신발을 꺼낸다. 리본이 달린 예쁜 구두다.

만섭 우리 딸, 선물! 맘에 들어?!

은정 (끄덕끄덕) 아빠, 고맙습니다!!!!

만섭이 은정을 안은 채, 집으로 들어간다.

107. 신문사 / 밤

담배를 피우며, 만섭에게 받은 종이를 읽는 기자.
책상 위에 담뱃재가 떨어지는 줄도 모르는데,

부장 (어깨를 툭) 뭘 그렇게 열심히 봐? 뭐 괜찮은 거 있어?

보안사 언론대책반 사무실에서 보도지침을 받아적던 편집부장(썬12)이 들여다보자,
기자가 황급히 종이를 가린다.

기자 (당황) 아, 아닙니다. 별 거 아니에요.

부장이 기사를 이상하게 쳐다보고는 지나가버리면,
기자가 종이를 찢더니, 휴지통에 버린다.

기자 누구 인생 망치려고...

108. 만섭의 집 앞 골목길 / 새벽

초조한 듯 골목을 서성이는 만섭. 자전거를 탄 신문배달원이 보이자, 한걸음에 달려간다.

긴장된 얼굴로 신문을 펼치면, 커다란 헤드라인으로 1면을 뒤덮은 <김재규 교수형> 기사.
만섭이 한 장씩 넘겨보는데,
'마무리 앞둔 성산대교 주변 정화 한창', '대통령배 고교배구- 중앙여고 일신 제압 2연승' 등
의 기사들만 눈에 띈다. 어디에도 광주 소식은 실리지 않았다.
망연자실 신문을 쳐다보는 만섭.

109. 국도극장 인근 다방 / 낮

80년 겨울. 피터와 이기자가 커피를 마신다.

피터 (영) 정말 다 찾아본거냐?
이기자 (영)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이름의 택시 기사는 없다.
피터 (만섭이 적은 메모를 보이며, 영) 연락처도 틀리고...

만섭이 적은 메모에는 '김사복, XX- XXXX' 라고 적혀 있다.

이기자 (영) 더 이상 찾지 마라.
피터 (쳐다보면)
이기자 (영) 김사복이 자기 이름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눈짓으로 구석자리를 가리키는 이기자.

피터가 슬쩍 쳐다보면, 다방 구석에는 양복차림의 남자가 앉아 있다.
한눈에 보기에다 보안사 요원이다.

이기자 (영) 당신은 외국 기자라 재네들도 쉽게 못 건드리지만, 미스타 김은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바로 끌려가는거다. 미스타 김도 그걸 모르지 않았을거다.

피터, 심란한 얼굴로 만첩이 적은 메모를 쳐다본다.

110. 에필로그

2003년 12월.

공덕동 한겨레 신문사 앞에 멈춰서는 택시. 피터(60대 후반)가 내린다.

- 신문사 강당

화면가득, 피터가 찍은 80년 5월의 광주 영상이 흐른다.

트럭을 타고 이동하며 홀라송을 부르는 시위대의 모습

거리를 가득 메운 광주 시민들.

광주 MBC 앞에서 시위대를 깔아뭉개고 지나가는 장갑차.

금남로에서 시민들을 향해 총을 발포하는 공수부대.. 그리고 이에 맞서는 시민들.

자막이 올라가고, 불이 켜지면,

무대 뒤에 '제2회 송건호 언론상 시상식'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사회자 제2회 <송건호 언론상> 수상자 피터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우면, 피터가 무대에 오른다.

피터 (영) 감사합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 방금 보신 영상을 제가 찍었습니다.

사람들 (웃음)

피터 (영)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나온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람들 ...

피터 (영) 지금 이 시간, 간절히 보고 싶은 또 한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택시기사 김사복씨입니다. 그 분이 아니었으면, 이 영상들은 아마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김사복씨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아파트 단지

만첩(60대 초반)이 아파트 단지 앞에 택시를 멈춰세운다.

만첩 (짜증) 대체 술을 얼마나 처먹은거야? 술을 처먹었을거면, 곱게 처먹든가.

술에 취해 뒷좌석에 뺨어있는 취객을 흔들어 깨우는 만섭.

만섭 (짜증) 학생!!! 학생!!! 집에 가야지!!!!
취객 (만취) 어? 저 학생 아닌데요.
만섭 (그러거나 말거나) 다 왔어. 택시비 2만원.

취객이 지갑을 찾는데, 지갑이 없다. 만섭의 표정이 일그러지는데,

취객 (해맑게 웃으며) 여깁네! (바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카드를 내민다)

비틀비틀 걷는 취객의 뒷모습을 쳐다보며, 혀를 끝끝 차는 만섭.
택시를 출발하려 하는데, 뒷좌석에 떨어져 있는 책을 발견한다.
만섭이 학생을 찾지만, 이미 보이지 않는다.
군데군데 손때가 묻은 ‘9급 공무원 일반상식’ 책이다. 책 사이에서 툭 떨어지는 신문.
무심코 신문을 넘겨보던 만섭의 표정이 점점 변한다.
신문 한쪽에 ‘제2회 송건호 언론상’ 수상자에 독일의 피터 솔츠 기자가 선정되었다는 기사와 함께 미스타킴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는 인터뷰가 실려있다.
기사를 읽는 만섭의 얼굴에 만감이 교차한다.

만섭 고맙습니다. (미소와 함께 피터의 사진에 시선) 한번 보고 싶었는데... 자네도 많이 늙었구만.

만섭이 핸드폰으로 은정에게 전화를 건다.

만섭 은정이냐?
(은정) 아빠, 나 지금 바빠. 내가 이따가 전화할게. (뚝 끊는다)
만섭 (서운) 나쁜 것.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만섭이 아직도 룸미러에 붙어있는 낡디 낡은 사진을 들여다본다.

- 고속도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만섭의 택시.

은정(V.O) 아빤...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소풍이야, 소풍은!

만섭의 택시에는 은정(30대 초반)과 은정의 남편, 그리고 은정의 어린 아들(4)이 타고 있다.

은정 그리고 우리 차 가져가자니까. 왜 굳이 택시를 끌고 가자고...
만섭 택시가 기름이 싸게 먹히지. 니네 차 가져가봐라. 기름값이 얼마데.
은정아들 (혀짹은 소리) 할아버지, 우리 어디가요?

만섭 우리 소풍가요. 할아버지랑 좋은데 같거예요.
은정 (투덜) 좋기는... 어디가 좋다고..

은정의 남편이 그만 좀 하라고, 은정을 쿡 찌른다.

- 망월동 518 국립묘지

은정의 아들이 묘지 사이를 아장아장 뛰어다니며 장난친다.
국화다발이 놓인 두 개의 묘지. 황기사와 재식학생이다.
황기사의 무덤에 인사를 하는 만섭. 무덤에 담배 한 대 올려놓는다.

만섭 애들 데리고, 같이 소풍가자고 하자더니... (하늘을 쳐다보며) 워매, 날씨 참
 지랄맞게 좋구마이랑.
은정 (핀잔) 아뻘. 애 듣는데!

아장아장 만섭에게 다가오는 은정의 아들. 황기사의 무덤을 쳐다본다.

은정의 아들 (혀짧은 소리) 할아버지, 누구야?
만섭 응. 할아버지 친구.
은정의 아들 친구? 택시 친구?
만섭 응. 할아버지 친구한테 인사해야지.
은정의 아들 (손을 흔들며) 안녕!!!!

은정의 아들을 끌어안는 만섭.

- 고속도로

만섭의 택시가 고속도로를 달린다.
화면에서 서서히 멀어지는 만섭의 택시와 함께 화면이 점점 어두워지고,

암전에서 독일기자 힌츠페터가 1980년 5월 광주에서 촬영한 원본 영상이 떠오른다.
영상 옆으로 흐르는 자막.

독일 제1공영방송 아시아특파원 위르겐 힌츠페터가
1980년 5월 20일 택시기사 김사복의 도움으로 촬영한 광주의 참상은
즉각 뉴스로 보도되었을 뿐 아니라, <기로에 선 한국>이라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전세계에 광주민주화 운동을 알렸고,
국내에서도 일명 '독일 비디오'로 불리며 비밀리에 상영되었다.
오늘날 전해지는 광주민주화 운동 관련 영상자료는 대부분 힌츠페터가 촬영한 것이다.

1980년 5월 이후 힌츠페터는 택시기사 김사복을 여러 번 찾았으나 만날 수 없었다.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한 보도를 멈추지 않았던 힌츠페터는
1986년 11월 광화문에서 시위 취재 도중 사복경찰에게 구타를 당해

목과 척추에 중상을 입고 1995년 은퇴하였다.

2003년 제2회 <송건호 언론상>을 수상한 힌츠페터는 수상소감과 함께,
택시기사 김사복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그는 여전히 김사복을 찾고 있다.

-END-